

한 영 현 (당시 21세)

墓



1962년 3월 1일 인천 출생
 1981년 한양대 공대 기계공학과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
 교내 씨를 민속문화연구회에 가입
 대학연합 민속문화연구회와 야화활동을 함
 1983년 4월 2일 강제징집
 1983년 6월 15일 휴가 중 녹화사업 폭로
 1983년 7월 2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사건경위 및 의문점

한영현 동지는 한양대학교 기계과에 재학했었던 학생으로 81년도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그는 가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위해 활동했던 사람이었다. 대학 1학년 때 민속문화연구부에 가입하고 선배와 함께 탈연합회에서 활동하였다. 82년 민속반이 학교의 방해로 등록을 하지 못하자 친구들과 소그룹을 형성하여 계속적으로 공부하였으며 82년 탈연합회의 선배 소개로 부천에서 야화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83년 1월 중순경에 부천의 야화에서 활동한 선배의 조사과정 중 한동지의 이름이 나오자 성동경찰서는 그를 끌고가 조사를 하면서 구타를 가했다. 조사 후 4월 1일 수원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나 누막염이라는 극도의 쇠약한 몸으로 병종을 받아 군대를 갈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4월 2일에 경찰서에 오라는 소식을 듣고 나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2-3주 후에 한동지의 옷이 집으로 우송되자 가족들은 그때야 비로서 한동지가 강제로 군에 끌려간 것을 알았다.

한동지는 입대 후 훈련소에도 가지 않고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직접 군수사기관에서 그간의 활동에 대해 진술해야 했다. 당시 도망다니다가 5월 9일 시위를 하여 조사를 받던 동료의 말에 따르면, 조사중 한 수사관이 영현이가 동물을 토하면서 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한동지의 육성이 녹음된 테이프를 돌려주고 그에게 술 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5월에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 형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보면 한군은 점점 건강이 회복되고 있으며 군생활에 인내력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나 6월 초에 친구에게 몇 번이나 면회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 다시 조사가 시작되어 심기에 불안함을 느꼈던 것으로 생각된다. 6월 18일에 포상휴가를 나왔는데 한동지의 팔에 철사로 심하게 맞은 듯한 피멍이 선명했다고 한다. 휴가 중 한동지는 "정신력으로 모든 환경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되나 자신이 없다." "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이며 81학년 뿐만 아니라 72학년까지도 여파가 미치는데 아마 커다란 배가 침몰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형에게 "기관의 어느 사람을 만나면 의가사로 10월이면 제대가 가능하고 잘하면 10월부터 다시 학교를 다닐수도 있는데 죄책감이 너무 크다"며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기관원이 누구이며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듯 한동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강점된 학생의 고초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귀대후 7월2일 부대로부터 전보로 자살통보가 와서 형님이 불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가보니 "6월30일 밤에 분대장으로부터 탄환을 훔쳐서 다음날 사역도중 오전 10시에 식사하고 화장실에 나갔으나 조금후 병커에서 총소리가 나서 가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시체를 확인해 보니 두개골이 없는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한동지가 가정 파

탄을 비판하여 자살하였다고 하나, 아버님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그가 죽기 3년전인 고 3때의 일이며 대학 입학후의 그의 건강한 생활태도와 행적을 볼때 그의 죽음의 직접적 계기가 될수 없다고 판단된다.

◎ 동지를 생각하며

사진으로만 본 영현이형.

이 시대를 치열하게 살다가 불꽃처럼 사라져간 영현이형의 넋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기립니다. 형의 후배로서 저희들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것을 형의 넋 앞에 굳게 맹세합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잠드소서. 우리 탈꾼들은 참세상이 올 때까지 형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참세상이 찾아오면 형의 영전앞에서 덩실덩실 춤추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시대를 불꽃처럼 살아갑시다. 영현이형 사랑합니다.

<영현이형을 기리며 탈 후배 동규가 형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 추모글

<시>

한 영 현

무어란 말입니까 시대를 비껴가며 산다는 것은 시대의 한복판에 내리는 비를 맞으며 부는 바람에 몸을 내맡겨 산다는 것은 무어란 말입니까 잊혀진다는 것은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무어란 말입니까 비상조치가 있던 시절 비상조치에 쫓겨보지 않고서 녹화사업이 있던 시절 녹화사업 대상에 들어보지 않고서

국가보안법이 여전한 시절 국가보안법의 족쇄에 묶여보지 않고서 그것을 비껴 기댄 곳에는 언제나 안식의 미래가 있겠지만

기꺼이 그 안에 산다는 것은 역사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의 정점에서 비껴살지 않았던, 기억하며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

게 하는 이름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한영현
 열아홉의 인생을 열아홉답게 살았고 스무살의 인생을 스무살답게 살았던 자신의 미래 안식의 미래를 살지 않았던, 그렇게 가고만

행당의 언덕과 진사로가 기억하는 이름

한영현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이름 오늘 그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같이 비껴살지 않은 이들에 의해서 행당의 역사가 나라의 역사가 되고 세계의 역사가 되는 미래

그런 미래를 만드는 이들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있는

행당산에서.

<당신을 위한 노트中 - 신동호>

<한영현 동지 추모사>

유세차 갑술년 10월 나나 추모사업회 회원 일동은 삼가 아뢰입니다. 무자비한 살육을 통해 권력을 찬탈한 5공화국 정권의 서술에 놀라 모든 이들이 침묵했을 때 열사께서는 분연히 일어나 잠든 대지를 향해 정의와 해방을 향한 고고한 외침을 토해냈습니다.

..... <중략>

우리는 아직 열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니다. 열사가 죽음으로 외치던 것들이 아직도 우리의 과업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대형사고가 터져도 슬한 사람들이 죽어가도 우리는 위정자들의 무지와 야만을 재확인할 뿐이며 국제화의 미명 속에 민중의 삶의 질은 오히려 후퇴하였습니다. 개혁은 그야말로 허명뿐이고 부조리가 정의의 자리를 빼앗고 허위가 진리를 덮어버리며, 이렇고도 남는 것이 심각하게 훼손당하였고, 민족의 자주권은 심히 종속당했고, 민중의 생존권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메카니즘은 때려부시고 자유와 해방의 빛을 던져줄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또한 원천봉쇄당한 1994년 오늘은 정녕 군부독재시대보다도 더 어두운 죽음의 시대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

리는 압니다. 우리의 의지와 장열이 열사의 죽음으로 다시 피어날 때 반도는 다시 빛의 바다가 되리란 것을.

하여 우리는 이제 열사를 보냅니다. 열사여! 님을 향해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적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를 한 송이 국화 송이로 함축해 그대를 보내 옵니다, 피어나거라 그대의 못다 핀 해방의 싹이여!

부활하거라 그대 녹두꽃의 상흔이여! 타오르거라 한양의 애국전통이여!

우리도 열사의 뜻을 받들어 행당을, 한반도를 정의와 자유와 해방의 땅으로 일구겠습니다. 그날 열사의 꽃넋과 우리가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출 때까지 한양의 애국전통이 면면히 쌓인 이 터에 고이 잠드소서. 상향.

박강희

〈추모의 글〉

지성과 낭만이 어우러진 곳, 가슴 가득 자유의 물결이 일렁인채 고뇌하고 방황하는 젊은 청년이 삶의 좌표와 인간의 의미를 찾는 곳, 우리는 대학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꿈은 상아탑을 들어서서 그 순간 산산히 부서졌다. 저들은 진리 대신 허위를 강요했고 자유, 진리, 정의를 향한 우리의 순수한 열정을 철저히 유린했다. 하여 우리는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별조차 사라진 철혹 어둠 속에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조국의 하늘을 열고자 떨쳐 일어설 수 밖에 없었다. 아, 어머니! 누가 우리에게 강의실 대신 거리를, 어머니의 따뜻한 품 대신 찬 바람 뿐인 감방을, 펜 대신 화염병을 택하게 했던가요. 저들의 잔악한 폭력과 야만 앞에 침묵과 굴종 뿐이던 80년의... 캠퍼스...

저라도 남아 한 판의 춤을 추어야 했습니다. 민족주체, 민주해방, 민주 생취를 향해 작지만 굳은 소리를 내질러야 했습니다. 가너린 절규, 굶다랗게 길러온 꿈, 솟아오르는 열정을 군화발로 짓이겼습니다. 사슬로 묶고 족쇄에 채워서 밀실에 가두었습니다. 인간으로 서기를, 식민지 조국의 청년이기를, 자랑찬 행당의 동지이기를 송두리째 저당잡히도록 끊임없이 반복되던 고문과 회유.....

어머니! 철성관 위에서 똥물까지 다 토한다해도 죽음의 사신이 동지의 배신과 삶을 맞바꾸자 해도 전 굴종할 순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조국의 하늘은 몹시도 푸르렀고 그 하늘 아래 민중들이 토해내는 절규는 너무도 처연했습니다. 그래 전 스물 세 살 어린 꽃넋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동지들 아직 저를 찾진 마세요. 분단의 철책이, 억압과 식민의 사슬이 산산히 부서지는 그 날. 전 다시 해방된 산하 골골마다 녹두꽃으로 흐드러지렵니다.

최 온 순



1981년	경기고 졸업
1981년 3월	동국대 사범대학 수학교육학과 입학
1983년 3월 29일	시위에비음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일주일 조사 후 강제징집
1983년 8월 14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사건경위

학생운동에 헌신해 오던 중 83년 3월 29일 시위에 비음도 혐의로 5명의 학우와 함께 경찰에 연행되어 1주일간의 조사를 받은 후 강제징집 당했다.

83년 8월 14일 군에서 집으로 급위독이라는 전보를 보내와 가족들이 급히 부대로 가보니 이날 새벽 4시께 숨을 거둔 뒤였으며 시체는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었다. 현병대에서 나온 자가 자살이라고 통보하여 이에 가족은 자살할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강력히 항의, 영안실의 사체를 1주일간이나 지키며 재수사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군수사대는 재수사를 하여 그 결과 고참병과의 말다툼 끝에 피살되었다는 수정통보를 얻어내어 최 온순 동지는 자살이라는 오명을 벗고 대전 국군묘지에 안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 온순 동지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다른 강집 의문사의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최 온순 동지 역시 보안대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죽음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더군다나 최 온순 동지와 같이 운동에 헌신하고 군대를 혐오하던 사람이 장기하사관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더욱 그의 죽음은 결코 자살일 수도, 고참병 누구의 총에 맞아 죽지도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 의문점

① 최초에는 자살로 발표하였다가 가족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히자 재수사하여 타살이라고 번복한 점(가족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다른 의문사 희생자들의 경우와 같이 자살로 끝났을 것이다. 최 온순 동지의 사인에 대한 번복 사실은 자살로 발표된 나머지 사망자들의 사인에 대해서도 의문은 더해 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

② 가해자의 타살동기가 사소한 언쟁 끝에 오발에 의한 사고였다는데 일반적으로 고참과 졸병 사이의 갈등으로 야기된 사고사는 고참이 졸병을 괴롭히는 과정에서 발생함으로써 졸병이 고참을 살해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는 것, 따라서 그의 죽음에 녹화사업을 담당하는 보안대가 개입되었는지의 여부가 계속 의문으로 남는다.

황정하 (당시 23세)

墓 化 장



- 1960년 12월 5일 부산에서 출생
- 1979년 2월 부산 경남고등학교 수석 졸업
- 1979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으나 색약으로 탈락
- 1980년 서울대 공과계열 입학
- 1981년 서울대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진입
- 1983년 11월 8일 교내시위중 도서관 6층 난간에서 추락
- 1983년 11월 16일 오전 11시 22분 운명

◎ 사건경위

황정하 동지는 83년 11월 8일 낮 12시 35분경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민주화 투쟁'을 주도하고자 도서관 6층 창문을 통해 밧줄을 타고 5층 베란다로 내려오다가 15m 아래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도서관의 방충망을 찢어내고 매어둔 밧줄을 난간으로 늘어뜨린 후 5층 베란다로 내려가기 위해 창틀에 올라서려 했다. 이 때 "저 놈 잡아라"하는 고함소리와 함께 열람실에 진을 치고 있었던 사복경찰과 수위들이 달려들었다. 난간으로 내려오던 동지는 기관원 10여명의 제지로 추락, 뇌골절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동지의 생명은 아랑곳 없이 학생들의 접근 제지, 시위주동 동료학생 체포에만 급급한 채 황동지의 웃옷을 벗겨 피가 흐르는 머리를 가리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11월 9일자 한국일보에 이 사건을 "관계기관원의 제지를 뿌리치려다 추락"으로 보도했다가 이튿날 즉시 "본인의 실수로 추락, 중태"라고 정정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학생들은 경찰이 밧줄을 흔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11월 16일 오전 11시 22분경 근 1주일간 투병하다가 운명하였다. 황동지의 시신은 운명한지 불과 6시간만에 육된 손들에 의해 벽체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여 가족들에게 돌아왔다.

◎ 동지를 생각하며

정하형!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육된 손들에게 벽체 화장터에서 뜨거운 불에 태워져 검은 재가 된 채 길바닥에 뿌려져 계십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그것은 진실일 수 없습니다. 형은 지금 서울대 도서관 6층 난간 위에서 의롭게 줄에 매달린 채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학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구호소리는 겨울밤이 깊어가고 인적이 뜸해 질수록 당신이 잠은 밧줄이 세차게 흔들려 당신의 팔에서 힘을 빼앗아 갈수록 더욱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만세!!"

1983년 12월 이 땅의 민주주의를 기원하며
서울대 학우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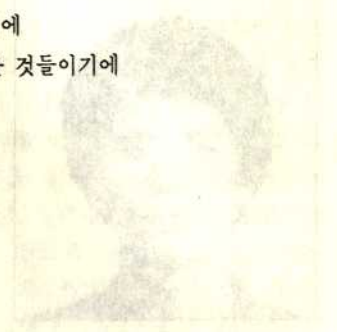
◎ 사건경위

〈시〉
황정하 동지여! 황정하 동지여!

떨리는 가슴을 부여안고
살을 후미는 아픔으로
형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러나,
형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고
빛나는 눈동자 거대한 몸뚱아리들이

햇불과 어우러져
내 몸 구석구석을 채워버립니다.
황정하 동지여!
민주와 민족을 위해
뜻을 모두우며
'같이 살고 같이 죽자'
그러나, 그러나,
무슨 빈 말이었더라 말입니까?
8년전, 또 2년전,
이제 또다시 형마저 앓아간
관악은 정녕 아수라귀의 헛바닥,
민주주의는 피를 먹으며 자란다지만
짓밟힌 꿈은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동지여!
깨어진 살, 부서진 뼈
그리고 한 줌의 재
색지 않을 것들이기에
아니, 색계하지 않을 것들이기에
황정하 동지여!
고이 잠드소서.



한 희 철 (당시 22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 열사 묘역



- 1961년 2월 1일 경남 마산 출생
- 1979년 2월 철도고 졸업
- 1979년 3월 서울공대 기계설계학과 입학 (철도청 장학생)
- 1982년 12월 1일 군에 입대
- 1983년 12월 11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사건경위 및 의문점

한희철 동지는 서울대 공대 기계설계학과 4학년 재학중에, 1982년 12월 1일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본부 부관 참모부에서 근무하다가 1983년 10월 14일 1차 정기휴가를 15일간 받아 귀가하여 집안일과 친구 만나는 일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던 중 외국어 대학교 데모 주동자였던 학생 김무현군을 만났다.

그당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하던 때 인지라 수배중인 운동권학생들이 도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도와주기로서는 합의하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친구 전봉일에게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자신이 쓰고, 김무현이 전달하기로 하고 헤어진 후, 한희철은 휴가일이 다 끝나 귀대하였다.

김무현은 편지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갔으나 전봉일을 만나지 못했고 재방문을 마음먹고 있던 중에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그때 편지가 발각되어 한희철도 동년 12월 6일 부대 근무중 보안사령부(현 국군 기무사령부)로 연행되었다.

한희철은 군부대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를 받으며 입대 전 학생시절의 민주화운동과 야학연합회 사건 관련 혐의로 전기고문을 당하면서 5일 동안 취조를 받고 난 후 12월 10일에 석방되어 심신이 피곤한 상태로 부대에 복귀하였다. 부대로 복귀한 그날 동료인 이모군에게 고문당했을 때 생긴 대퇴부위의 상처를 보이며 "전기고문을 두 번이나 당했다"라고 말한 후, "나는 이제 사방에서 감시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다음날(12월 11일) 새벽 4시 30분경 한희철은 부대 내 문서 보관창구앞 보초서는 자리에서 가슴에 3발의 총탄을 맞고 죽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사망통보를 받고 달려간 부친이 그날 오후 5시경 부대에 도착했을 때 시체는 이미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었고 고급장교 45명이 부친을 맞이하여 사망경위 등을 설명하였는데 그들에 의하면 5사단사령부 문서보관창고 앞에서 보초를 서던 중 자살하였다고 하면서 함께 보초했던 사병이 발견했다는 유서를 전해주었다. 부친이 그것을 받아 본 즉 편지가 3매에다 쓴 장문의 유서였는데 그를 요약하면 작별인사와 민주화 촉구, 경제정의의 실현 촉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글이었고 죽음의 원인이 될만한 비판이나 고민 같은 것은 조금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부친이 장교들에게 "혹시 희철이가 보안대에 불려갔다는 일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들 중의 본부대장은 일주일 전에 보안대 요원이 신상기록카드를 보고 간 일이 있는데 희철이가 왜 보고 갔는지 이유를 물어봐 달라고 하여 그러겠노라고 한 적은 있었다고 말할 뿐이었다. 부친이 영안실로 가서 시체를 확인한 바, 가슴에 3발의 총탄자국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고, 손은 굵은 바늘로 염을 해놓았는데 보기가 흉한 정도로 손등이 검은색을 띄고 있었고 약간 부어 있었다. 비통함에 잠긴 부친은 더 이상의 세밀한 조사를 못하고 그날밤 몇십명의 장병들과 나팔수, 소총수가 동원된 장례식에 참석하고 난 후, 태극기로 덮인 관을 군용 앰블런스로 벽제 화장터

에 옮겼다. 그리고 장교들은 다음날(12월 12일) 오전 11시까지 가족이 화장터에 와서 시체를 인수, 처리토록 하라고 하였다. 부친은 다음날 군중 신부님을 오시도록 해달라고 하였고, 그들은 쾌히 승락하였으므로 시체를 화장터에 둔 채 집으로 귀가하였다. 다음날(12월 12일) 아침, 부친은 친척과 함께 화장터에 도착한 후, 11시가 넘도록 신부님 오기를 기다리다 부대 담당자들의 독촉과 성화에 쫓겨 다급하게 화장을 하고 말았다. 그때 장교들은 의도적으로 부친의 부탁을 군중 신부에게 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후 3회에 걸쳐 부대를 찾아가 부친은 진상규명을 해보려고 애썼으나, 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아 별 진전없이 의문에 싸인 채 지낼 뿐이었다. 그러다가 서울의 각 대학생들의 주최로 열린 흥제동성당에서의 "한희철 100일 추모제" 때 배부된 "강제 징집 진상보고서"를 보고서야 의문의 실마리를 잡게 된 부친은 보안사령부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부친은 한희철이 보안대에서 5일동안 조사받은 사실과 기록을 확인하였으나, 고문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끝내 부인하였으므로 할 수 없이 두가지 사항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 하나는 일단 머리를 깎고 군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전 학생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문제삼지 말고(녹화사업 등), 또 하나는 학생들의 강제징집을 즉각 중지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자살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도 의문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다른 사람에 있어 의문사인 경우 유서를 조작한 사례가 있었고, 둘째 부대 고급장교들이 사망자가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유족에게 허위 대답을 했다는 점, 셋째 그들이 한희철이 학생활동에 있어서 지도자급임을 알고 한달내에 제대한다면 녹화사업에 지장이 될 것임을 예상하고 제거할 필요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넷째 부친이 세번이나 부대에 가서 진상을 물었을 때 한결같이 답변하기를 꺼렸다는 점, 다섯째 보안사에서 취조와 고문한 사실이 석방된 한희철을 통해 알려지게 될 것에 대해 미연 방지책을 쓸 수도 있다는 점, 여섯째 3발의 총탄자국이 삼각형을 이룬 것은 단발로 쏘았을 때 가능하며 연발로 쏘았을 때는 위로 직선을 이룬다고 여러 경험자들이 말한 점 등이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타살되었을 가망성이 높으므로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사법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일 자살이라 하더라도 죽음으로 물고 갈만한 국

한 상황을 만들게 한 보안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한희철이 사망 직전 동료에게 건네준 YMCA에 보내는 편지에 의하면 취조를 받을 때 고문당한 것은 물론 협박과 앞으로 전개될 일의 확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로 몸과 정신이 견디어 낼 수 없어 조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새에 자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사는 [한희철은 군부대 녹화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 종료 후 가정비판(모친의 가솔, 동생의 정신질환)으로 자살하였다.] (국정감사 때 제출한 정부측 자료)고 하여 비판자살이라고 결말지었다.

이는 참으로 엉뚱한 이유를 들어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유고글

(양심선언문)

... 생 략 ...

세계와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협과 유물론적 공산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교회의 신앙을 좀 더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며, 성직자들과 30대 젊은 학자들 책임, 또한 현 학생 운동층들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봅니다.

민족과 민중(개념이 아니라 형제는 실제)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십시오.

... 중 략 ...

하느님과 민주주의가 우리 한민족을 유일한 권위로 지배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하느님과 민중의 마음만이 모든 악고 구조 악을 이땅에서 몰아낼 수 있는 힘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국민, 양심을 지키며 사는 국민들의 축적된 힘으로 오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기다리겠습니다.

... 중 략 ...

그간 저의 비밀스런 활동들로 인하여 공산주의자로 몰릴 위험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주실 줄 압니다. 유물론의 역사와 하느님의 역사가 어떻게 다른가 공부하십시오.

83년 늦가을 한 희철 귀리노

허원근 (당시 22세)

墓



1962년 5월 15일 전남 진도에서 출생
1981년 3월 광주 대동고등학교 졸업
부산 수산대 입학
1983년 군 입대
1984년 4월 2일 운명

◎ 사건경위

머리 양가슴에 삼각형의 총상

1984년 4월 2일 오후 1시 20분경 제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본부에서 30m 떨어진 폐유류고 위장대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허원근 동지(당시 22세, 부산 수산대 2년)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허일병은 중대장 당번병으로 첫 휴가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군당국은 허동지의 사망 시각을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으로 발표했고, 부대측에서는 자살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러나 총상은 M16에 의해 흉부 좌우측에 2발, 두부에 1발 등 세발을 맞고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군당국이 발표한 자살 동기는 '중대장 전령으로서 중대장의 가혹행위와 군대 생활에 대한 염증'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문점

① 살상력이 강한 M16 소총을 위치를 각각 바꾸어 가면서 3번이나 사망자 스스로 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 우선 의심스럽다. 부대측에서는 "먼저 허군이 총구를 오른쪽 가슴에 밀착, 오른손으로 총 윗덮개 부분을 잡고 왼손 엄지로 격발하여 총알이 간장 중앙 상단부와 횡경막 폐장 하단을 뚫고 등쪽으로 관통하였으나, 당장 자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심장에 가까운 왼쪽 가슴에 총구를 밀착하고 왼손으로 총구부분을 잡은 후 오른손 엄지로 두 번째 격발을 하여 탄환이 폐장

하단을 뚫고 겨드랑이 쪽으로 관통하였으나, 역시 의식이 남아 마지막으로 오른쪽 옆구리가 땅에 닿는 45° 각도로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총구를 오른쪽 눈썹에 밀착시키고 오른손 엄지로 격발하였다"고 군의관 소견서 등을 근거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M16 소총을 두 발이나 몸에 쓰고 다시 머리에 정조준하고, 또 그 직전에 정조준을 위한 적절한 자세를 의식적으로 취했다는 것은, 아무리 두 번의 격발이 탄환이 몸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관통하여 치명상-즉각 사망할 정도-을 입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권총이나 단검과 같은 비교적 사용이 간편한 도구가 아닌 총구에서 방아쇠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먼 M16을 두 번이나 맞은 후에(빛겨나간 것: 스치고 지나간 것도 아닌) 다시 머리에 대고 쏘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② 부대측의 자살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가장 큰 논거가 밀착사격=자살이라는 데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대개의 경우 총구가 피부나 옷에 밀착된다면(타인에 의해) 방어할 것이나, 협박조로 들이대고 사망자가 채 피하기도 전에, 또는 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피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상급자여서 일단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타인이 격발할 수도 있다. 실제 83년 9월 20일 19:00경 중대장이 하사의 불순한 언행을 이유로 중대원들 앞에서 M16에 실탄을 장전하고 복부에 대고 위협했다는 사실은(육군 제2621 현병대

자료에 의함) '밀착사격=자살'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③ 부대측에서는 사망자의 머리에서 바로 50cm앞에 올타리(나뭇가지로 되어 있음)가 있어서 타인이 총구를 들이댈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부대측 말대로 우측 흉부→좌측 흉부→오른쪽 두부로 격발하여 직접적 사인이 두부총상이라면 사망자는 오른쪽 눈썹위에 총구를 들이대고 방아쇠를 당긴 후 바로 즉사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M16은 총구가 오른쪽 머리쪽을 향한 채 놓여있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 현장 사진을 보면 총은 우측겨드랑이 밑에 있다.

④ 사망자의 상처 부위와 그에 따른 탄피, 실탄수에 대한 군부대측의 발표는 일관성이 없다.

사망자는 3곳에 총상을 입었고, 총성은 두 번 들렸고,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는 2개뿐이었다.

중대장은 병기계원의 착오로 탄창에 남은 실탄이 13발이라고 잘못 발표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대장의 행위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중대장은 사망자가 탄창을 2개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병기계를 시켜 사망자에게 탄창 3개를 갖다두라고 했다. 중대장의 진술에 따르면 사망자가 규정량의 탄창 - 규정량의 탄창은 5개 -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교육부실에 대한 추궁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망자 앞에 두고 중대장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나중에 병기계원의 진술에 따르면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실탄 1발을 사망자의 곁에 살짝 묻어 두고 왔다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러한 중대장의 행위는 사건을 자살로 몰아가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중대장 말이 처음에 사망자가 2탄창을 가지고 가서 3발을 쏘고 탄창에 11발 약실에 1발 포함 12발이 남아 있는 것은 규정량 5탄창을 휴대하지 않은데 대한 교육부실추궁이 두려워 3탄창을 추가시켰고 당시 이 일을 수행했던 병기계원의 착오로 잔여탄 13발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⑤ 중대장이 사망시간을 10:30→11:00→13:00로 교육시킨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후 사망시각이 9:50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근거가 멀리 철책선을 둘러보던 중대장이 희미하게 들었다는 진술과 상황일

지 기록의 일치라는 것인데, 3번이나 수정 교육시킨 중대장의 이유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그런 중대장의 '멀리서 희미하게 9시반경 총성을 들었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은 100%라 하기 어렵고, 보다 중요한 것은 송기호(당시 사망자와 같은 부대의 근무자)의 진술서가 상황일지의 조작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즉 사망시간 9시 50분 자체가 불확실하다.

(진술서- 당일 16초소 근무중 11번 근무자로부터 총성보고 받고(10시 52분경) 중대본부 상황병에게 보고, 그 후 중대장 지시라고 홍민표가 중대본부에 내려와 상황일지 시간변경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이 사실 목격자 많다고 함) 오후 5시경 감찰관이 상황일지 제출을 명령→수행)

또한 9시 50분이 조작된 것이라면 당시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것이다.

또한 현병대 자료에 의하면 그 총성이 서방 500여미터 떨어진 11번 근무자가 총성을 들을 정도로 그 소리가 컸고 세 번이나 울렸으며, 부대측 주장이 자살이라면 각 총성이 연이어 나지 않고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재조작을 위해) 그런데 현장에서 중대본부는 30m이고 남방 20m에 주차장이 있는데, 현병대 자료에 의하면 "9시 50분경 21번 근무자가 총성청취사실을 상황병에게 보고→미발견"이라는데 이 자체가 송기호의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총기사고는 군에서 무척 중요한 것인데 총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은 2발만 들었다고하며, 또한 이렇게 크게 울리는 총성을 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중대본부에서 먼저 듣고 즉시(외부 지시로 수색한 것이 아니라)보고하거나 수색하지 않은 점은 의심스럽다. 또한 20m 떨어진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는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중대장은 초소 순시중이었다고 한다. 09:50분경 21초소, 10시 50분경 18번초소로 이동중인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 이 시각 11번 초소 근무자가 총성을 2번 들었다. 즉, 총성과 사망시각을 변경한 것은 당시 현장에 머물렀던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⑥ 부대측에서는 '중대장과의 갈등'으로 자살 동기를 추정하고 있는데, 현병대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가 중대장으로부터 직접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지역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비록 중대장의 당번병으로 중대장 명령으로 취침시간을 조금밖에 갖지 못했다고 하나, (중대장의 호통으로 통상 02:00경 취침하여 2시간 근무하여야 하므로 06:00 기상까지 1-2시간 취침했음) 이것이 자살 이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고, 그동안 아무리 수면부족으로 죽고싶을 정도라 하더라도 따뜻한 음식과 편한 잠자리가 한정없이 보장되는 휴가, 그것도 입대 후 첫 휴가를 하루 앞두고 자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하루만 더 참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3월 증순경 보직 변경 건의를 했다는 것(중대장이 거절), 사건 당일 오전 9시 30분경 자신에 대한 교육불성실을 이유로 상관인 상병 이진경이 폭행당한 것(중대장으로부터)으로 인한 압박감이 직접적 자살동기라고 부대측은 파악하고 있으나, 3월 증순은 사건당일로부터 15일 전이고, 당시 중대장의 이진경에 대한 폭행은 철모로 두부를 1회 구타한 것으로, 사망자를 자살로 몰고갈 정도의 심한 압박감을 불러일으킬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⑦ 화약검출 실험을 왜 중대장만 제외하고 실시하였는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가정하에 실시했던 부대원들의 화약검출 실험에서 왜 굳이 중대장만 제외하였는가 하는 점은, 중대장의 괴팍한 성격(모든 부대원들에게서 :헌병대 자료)과 더불어, 한층 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당시에 훈련을 마치는 병사들에게는 부모와

만나는 면회를 오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 사단만은 근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회를 못하도록 한 사실도 배제할 수 없는 증거이다. 입대한 지 (83.9.28입대) 6개월이 지난 사망자가, 군대라는 사회의 분위기를 알만큼은 알았을 사망자가, 폭언이나 수면부족, 상관이 자기 때문에 군대에서의 폭행으로는 아주 경미한 구타를 당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압박감이나 삶의 회의를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총을 세 번이나 모질게 쏘며 죽을 정도의 압박감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그리운 가족을 만나는 입대후 첫 휴가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앞의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고 극심했다 하더라도 자살을 했다는 추정이 상식적으로 어긋난 것임을 보여준다.

오히려 중대장의 가혹행위·폭력·괴팍한 성격(모든 부대원들에게)과 (헌병대 자료참조) 사망자가 중대장의 당번병이었다는 것, 중대장이 연대장에게 보고했고 연대장의 지시에 의해서총성정취교육을 수차 반복하여 시켰던 점, 화약검출실험을 중대장을 제외하고 실시했다는 점 등은 의혹스러운 부분이다.

* 이 사건에 대해 제조사를 할 것을 진정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국방부에서 제조사 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97년 10월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기 혁 (당시 20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 열사 묘역



1965년 2월 7일	전남 광산에서 출생 1971년 아버지 기세문씨 통혁당 재건사건으로 수감(15년 복역) 충장중학교졸업
1984년	광주 대동고 졸업 전남대 의과대 입학, 이념씨를 '탈' 가입 8.15반일반제 시위, 전두환 방일반대 투쟁 학원민주화투쟁참여
1985년 1월	빈군사독재 민주화운동과정에 발생한 비교육적 부당유급제 반대투쟁 중 행방불명
1985년 1월 16일	광주 무등산 증봉에서 시체로 발견 의혹과 불의에 대한 저항과 분노로 자결
1990년 2월26일	명예졸업장 수여

◎ 사건경위

어린 나이에 부친이 통혁당 재건사건으로 복역을 하는 일을 겪었지만, 깨끗하게 자라서 전남대 의대에 입학하였던 동지는 부친이 복역 중이므로 다른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것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말렸으나, 그런 것이 운동을 기피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입학 후 탈반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고, 당시 전남대 의대의 억압적인 분위기와 단 한 과목이라도 낙제 점수가 나오면 제시험의 기회를 주지 않고 무조건 낙제시키는 부당유급제 반대 투쟁의 과정 중 85년 1월초 행방불명되었다가, 1월15일 무등산 바람재에서 얼음덩이 시체로 발견되었다.

◎ 동지를 생각하며

우리 혁이는 영웅 열사가 아닙니다. 영웅 열사들과 같은 장렬한 죽음을 하지 않았으며 위대한 운동가들처럼 빛나는 투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한 열사들의 죽음처럼 사회 정치적 변혁이나 역사 발전의 계기가 되는 큰 투쟁을 불러일으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혁이의 죽음은 영웅열사들의 죽음과 같이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존경과 추앙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혁이의 죽음은 전두환 군사정권 체제하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체제와 시대의 희생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역사는 위대한 영웅들의 투쟁만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싸우다 이름없이 사라져 간 수많은 민중들의 힘과 투쟁에 의해서도 창조되고 발전하다는 민중사관에 입각해서 보아야 합니다.

혁이는 의식화된 순진한 대학 1학년생으로서 5·18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군사정권과 학생들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위한 학생회의 결의와 지시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에 의해 다른 학생들보다도 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설사 혁이의 죽음이 스스로 자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군사정권 체제와 어용교수들의 비교육적 비양심적 폭압 앞에 더 이상 견디어 낼 수 없는 고통과 고민 끝에 끝내 좌절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약한 자의 분노와 절망이 가장 귀중한 생명까지 버리게 한 마지막 저항인 것입니다.

(기혁 동지의 아버지가 쓴 글)

◎ 유고글

<편 지>

아버님께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지금이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합니다. 몸은 편찮으신데는 없는지요.

아버님 내일 모레가 식목일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과 삼촌이 산에서 큰 돌을 지게로 저다가 화단을 만들던 일이 생각납니다. 아버님께서 정성들여서 만들어 놓으신 그 화단에는 아카시아, 향나무를 비롯해서 목련, 무궁화, 동백등과 대문 구실을 하던 사철나무 두 그루와 제 출생기념으로 심었다던 은행나무도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된 일이지만, 두 번째로 큰 나무는 중동이 부러져서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고 오히려 옆의 가지들이 더 커서 지금은 그점을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님 지난 3월16일은 할머니의 여든 두 번째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고모와 함께 영광에 다녀 오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처음에는 어머니와 고모를 잘 알아보지 못하시다가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신 뒤에야 알아보셨답니다.

아버님께서 편지때마다 저희들의 건강상태를 걱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버님의 공연한 걱정애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도리어 아버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곳에 계신 아버님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이고 몸이 약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일 것입니다. 아버님께 면회 갔을 때 그렇게 출지도 않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 소매 속으로 손을 넣으시고 몸을 자꾸 움추리시던 모습을 보면, 역시 몸이 약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저에게 보내신 편지에서 제가 가고 싶지 않다는 의대를 보내려 하는 것은 어머니의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약간 잘못 알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의대를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의대보다는 물리대 같은데

더욱 제 마음이 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집의 형편을 보면 제가 의대6년, 수련의 3년간의 과정을 마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되지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앞으로 3년이면 아버님께서 나오실텐데, 둘이서 별면 너희들 삼남매 못가르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 보면 역시 어머니는 3년후에 아버님이 전향을 하고 나오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버님 거기에 관해서는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우리 식구 모두는 어머니의 의견에 뜻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유명한 아버님보다는 그저 평범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저희들에게는 따뜻한 그런 아버님을 더욱 바라고 또 원합니다.

아버님 지금은 밤입니다. 불을 안 댈 방이어선지 상당히 춥습니다.

낮에는 더워서 벗어버리더라도 주무실때는 옷을 있는대로 껴입으십시오.

아버님 몸건강하십시오. 다음날에는 5월5일 어린이날에 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83년 4월 3일 혁 올림

<마지막 편지>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진영아! 이 추운 겨울에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또 그 빈혈이라는 증세가 계속되고 있는지 어떤지도 궁금하고.

진영아! 지금부터 하려는 말이 비록 비극일지라도 네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고 또 의논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아무리 네게 소홀히 대했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 같구나.

진영아! 나는 왜 이리 어리석을까? 꼭 무슨 일을 당한 뒤에야 뉘우치고 반성을 하게되니 말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어제 학교에 갔다가 오는데 버스 속에서 꺾과 쪽지를 돌리면서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을 보았단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없어도 꾀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몇배나 더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텐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겨우 그까짓 1년쯤 뒤지게 됐다고 해서 풀이 죽어 죽음을 생각해야 하느냐고 느껴져 그러한 헛된 생각이 싹가서버리긴 했지만, 또 날이 바뀌게 되니 다시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지난 여름에는 유급을 당하더라고 별로 두려울 것 같지 않았는데 참 이상하구나.

진영아! 나란 놈은 얼마나 불쌍한 녀석인지... 요즘엔 계속 죽음을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만 늘어 놓고 있는 것 같지만.

진영아!

이 비겁하고 소극적인 네 친구는 이러한 생각외에는 더 이상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없구나. 평소에 이 세상에 대해 염증을 느껴왔고 또 나의 남은 삶에 대해서도 미련이라는 것도 전혀 없었으니까...

누가 그랬더구나. 세상에서 단 하루를 사는 것도 백년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월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해가 떠서 지고, 달과 별이 떠서 지는 이치는 변할까닭이 없지 않느냐고. 그러니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구나.

진영아! 오늘은 나답지 않게 말이 좀 많구나.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아쉬운 것이 하나 남아 있구나. 그것이 너같이 좋은 녀석을 친구.

진영아! 정말로 저승이 있다면 우리 이승에서 다하지 못한 우정을 나중에 수많은 세월이 흐르더라도 잊지말고 있다가 다시 만나서 마음껏 펼쳐 보자꾸나.

1984. 12. 29로 삼아 놓고서도 그 우정을 마음껏 꽃피워 보지도 못하고 나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중단되어야 하다니 나는 역시 운이 없는 녀석인가보다

못난 친구 혁이가

기혁아 이제는 잠들어라

- 그 아버이를 대신하여 -

기혁아 이제는 고이 잠들어라

그 꿈꿈 얼어붙은 겨울공화국

혹한의 정월달 무등산 정봉.

네 맨몸둥이 하나로 버티기엔 얼마나 추었느냐
천지를 뒤덮은 눈보라 속에서

스스로 시험했던 저항의지로

너는 군부 독재의 총칼을 이겼거니

0하 30도의 모진 추위마저

너의 분노를 끌 수는 없었거니

끝끝내 굴복을 거부한 스스로의 신념으로

너는 적을 이겼었다 마침내 자신을 이겼었다.

꿈꿈 얼어붙은 가여운 작은 몸둥이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자식이

차디찬 얼음장이 되어 돌아왔을 때

어미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아비는 감옥에 갇혀 철창을 두들겨 울었고

학우들은 무기력에 기가막혀 허공을 저주했고

배신에 치를 떠는 세상은 쉬쉬 입막을 했다.

한줌 재로 남은 가여운 아들 기혁아

무덤마저 없었던 별거벗은 너의 세월.

어머니의 가슴이 무덤이었던 6년을

젖먹이 어린 시절인 양 어미품에 안겨

아 이 어미는 너를 땅에 묻을 수 없었다.

감옥에 갇힌 아비는 차마 너를 강물에 띄울 수 없었다.

1980년 광주, 지옥의 5월에

그래도 철이 든 너는 중학생

아버지 가둔 조국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민족주의자 대신 빨갱이 소리 너무 괴로워서

검은색 회색으로 먹칠했던 동심위에

5월에 피는 핏빛 장미가 무서워서

빨갱이 아들소리 싫고 괴로워서

이 나라 의사의 꿈 가슴에 안고

너는 남모르게 많이도 울고 몸부림쳤지.

그 아버지 옥중에서 풀려나 집에 돌아 왔는데

아버지! 인사 한마디 말할 줄 모르다니

무심한 한줌 젓가루 그 형체도 체온도 사라져

너는 정말 영영 죽은 것이냐.
너는 정말 그 추위 속에 뽕뽕 얼어 죽은 것이냐.

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분별없는 무정한 조국을 짝사랑하며
진리보다 기독교 고수에 연연한
젊은 학생들의 모가지 흥정하는 조작 유급학칙 분
통해 하며
호소할 길 없는 순결한 의분심.
어머니 무등산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구나
차거운 비정의 바윗돌 두드리며 가슴을 쳤구나.

그러나 어찌랴, 무심한 세월은 흘러 8년.
그래도 사랑은 증오보다 강한 것이냐.
기혁아 이제서 고이 잠들어라.
이제야 우리는 너를 위하여 운다.
6년만에 마련한 너의 무덤
5·18 영령과 더불어 조국의 품에 안겼으니
못다핀 한일랑 한떨기 풀꽃으로 피어라.

무등산에 다시 오는 5월,
너의 작은 무덤에도 풀씨가 돋아나고
자랑처럼 진달래도 점점이 붉었다.
어미도, 아버지도
제정신 찾는 이 땅의 선배도 스승도
모두 모두 떨어져나서 새로 이룩하는 민주공화국
통일로 가는 2천년대의 민족전선에서
기혁아, 너는 내릴 수 없는 우리들의 깃발이거라.
오오 못다 살고 죽은 우리의 아들이
우리들의 가슴을 무덤삼아 고이 잠들어라.

문병란(조선대학교 교수)

우 종 원 (당시 23세)



1962년	경북 의성 출생
1981년	서울대 사회과학대 사회복지학과 입학
1983년	학외 유인물 배포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음
1984년	특사로 석방
1985년 10월 11일	수배중 경부선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 열사 묘역

◎ 사건경위

가족들과 그를 아는 친구들에 의하면 그는 차분하고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가는 홀어머니의 막내였음에도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강직한 성품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는 대학생들 중 이 사회의 심각한 모순과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자기 성찰의 와중에도 항상 주위의 친구들을 다정다감하게 위해줄 줄 알았고, 때로는 기지에 찬 유모어로 자주 주위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였다고 한다.

<수배에서 의문의 죽음까지>

-1985년 8월 중순경 : 예비군 교육 통지서를 받고 대구집에 내려간 후 자신이 수배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까지 계속 훈련을 받고 있었음.

-8월 24일: 자신의 수배 소식을 들음

-8월 26일: 가출

-8월 27일: 소속 불명의 형사 2명이 집에 찾아와서 우종원 동지를 찾았으나, 부재 중이어서 되돌아감.

-9월 27일: 중앙일보 11면에 삼민투 관련 용의자 수배자 명단에 우종원 동지의 이름이 기재됨.

-10월 7일: 어머니가 상경하여 학과 사무실을 통해 우종원 동지의 소식을 물었으나,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귀가함.

-10월 12일: 오전중에 대구 시경 소속 형사 1명이

집에 찾아와 어머니를 만남. 이때 "종원이는 참 가까운 학생이다. 삼민투에 가담하여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다 신세 망쳤다. 빨리 자수시켜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고 함. 이날 오후 6시경 본격지(고향)에 거주하는 백부로부터 우종원 동지의 사망소식을 접함. 즉 우종원 동지가 1985년 10월11일 23시경 경부선 하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충북 영동 - 황간 역 사이, 황간역에서 4Km쯤 되는 곳에서 투신 자살했으며, 시체는 다음 날인 12일 아침 (정확한 시간 미상)철도 선로반원 사람들 (성명미상)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백부에게는 황간지에서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됨) 이때부터 우종원 동지의 어머니는 실신상태가 됨.

-10월 13일: 새벽 1시경 형님이 황간에 도착, 시신 확인

<시신의 상태>

(1) 당시 시신은 전날 많이 내린 비로 인하여 매우 젖은 상태였고, 하행선 철로에서 3m 떨어진 콩밭의 고랑에 횡으로 누운 상태로 비닐과 거적으로 싸여 있었다고 함.

(2) 옷차림은 밤색 잠바, 바둑무늬 남방, 밤색 골덴 바지 및 헤진 양말을 신고 있었고 내의는 상·하의 모두 새 것이었다 함. 운동화는 1짝만 신고 있었고 나머지 1짝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었다 함.

(3) 나중에 염을 하기 위해 옷을 벗기고 본 시신의

상태는 다음과 같음

코와 귀에서 출혈의 흔적이 있었고 오른팔은 골절된 듯 굽혀진 채로 굳어 있었다. 가슴과 목 바로 밑의 두 군데는 커다란 멍자국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흙물이 묻은 줄 알고 닦아 내려줬으나 지워지지 않자 멍든 것임을 확인함. 또 복부가 전체적으로 붉은 색조를 띠고 있었다 함.

(4) 10월 13일 자로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소재 영창의원(의사 조영호)에서 발급된 사망 진단서 상에는 직접사인을 "두개골 복합골절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당시 형님의 기억으로는 두부에 외상은 없었다고 함.

<소지품>

황간지에서 형님 도착 전에 주머니에서 꺼낸 소지품으로는 자살의 유일한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유서내용을 적은 쪽지와 수원발 동대구착의 특급기차표가 있었다 함.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전혀 없었다고 함. 후에 형님이 물에 젖은 술담배 (10개입) 및 성냥을 찾아냄.

유서는 독서카드용의 종이 2장에 쓰여 있는 것으로 제 1면에는 "수무상형 병무상세 오행무상세"이라고 한자로 쓴 어귀가 적혀 있었으며, 매우 서투른 아라비아 숫자로 쓰여진 것 같은(내용 미확인) - 우종원 동지의 필체인 것 같다고는 하나 아라비아 숫자는 전혀 아닌 것 같다고 함. 아라비아 숫자는 타인이 썼을 경우 무학자의 필체에 가깝고 동일인의 필체이라고 해도 비정상적 조건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됨- 글이 있었음. 기타 제 1면의 나머지 글씨는 황간지에서 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나온 성명, 본적, 주소들 쓴 것이라 함.

유서의 제 2면에는 오직 "어머니, 형, 누나, 숙부님, 국회(사촌동생, 당시 서울대 재학중) 죄송합니다" 라고만 쓰여있다. (필체는 형님 의견으로 고 우종원 동지의 필체일 것 같다고 함)

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기차표는 그 후 열차역에서 회수해야 한다고하여 형님이 무심결에 주었다고 함. 우종원 동지의 사망 시간을 10월 11일 23시경으로 추정된 것도 위의 기차표 시간을 따져볼 때 사고지점을 지나는 시각이 23시경이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

과 황간역에서 판단한 것 같음.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시각도 이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으로 추정됨.

◎ 의문점

이상이 우종원 동지의 죽음을 둘러싼 현재까지 알려진 전부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① 어머니와 형님은 우종원 동지의 자살 그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미 한 번 감옥에 갔다 온 우종원 동기이기에 또다시 감옥에 간다는 것이 두려워서 자살을 결심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또 정말로 열차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의외로 의상이 없는 편이라는 점.

② 자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증인 유서에서 그의 신원을 밝혀주는 유일한 단서인 주민등록번호의 아라비아 숫자 필체가 우종원 동지의 여타 유서상의 그것에 비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

③ 사망 추정시간을 결정하였던 유일한 근거인 기차표 역시 현재 유실된 상태이고 또 시신을 사망후부터 형이 확인할 때까지 상당시간 (24시간 이상) 동안 폭우 속에 방치된 후에 이루어진 사망진단이기 때문에 그 정확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점.

④ 만일 우종원 동지가 정말로 자살하였다면 왜 단순 번사사건에 불과한 이 일에 대구 시경과 안기부가 민감하게 개입하였는가 하는 점은 우종원 동지의 화장이 끝난 며칠 후인 지난 10월 17일 고인의 학과 친구들이 대구 집에 조문을 갔을 때 형사들이 집 앞에서 출입자들을 일일이 검문하고 들여보냈다는 사실에서 보아도 더욱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점.

◎ 유고글

<편 지 1>

어머님께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마쳤는지 궁금하군요.
어머님과 형, 누나들의 건강도 염려됩니다.
저는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하는 것이 많이 안정되어 불편한 줄 모르

고 잘 지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과 가족, 친지들에 대해 저지른 저의 잘못을 어떻게 빌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제 몸 잘 보살피고 차분히 책이나 보는 것 외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더 정확하게 제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끔 경찰서에서 우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제 자신은 약한 존재가 결코 아니고 또한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와 어머니, 형, 누나들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부모, 형제간이기에 많은 괴로움을 간직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형의 결혼을 계기로 우리 집에 많은 행복이 넘치길 바라며 아울러 그 자리에 함께 못한 아쉬움을 전합니다.

저한테 돈이 충분히 있으니 2월 10일 정도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설, 아버지 제사 지내고 오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머니가 자주 오시길 말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복, 속옷, 양말 모두 잘 빨아 입습니다. 몸 건강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편지할게요.

1. 17. 종원 드림

<편 지 2>

어머님, 형, 누나

아무리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소신을 가지고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순간까지 어려운 여건에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공부하도록 보살펴 주신 어머니와 형, 누나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금할 길 없으며 입이 있어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손이 있어도 어떻게 써야 할지 염치가 없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왔다갔다 하시는 어머님께 죄송스런 마음을 아무리 마음 속에 간직한다 한들 여기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편안히 잘 지낸다고 말씀드리기에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만 모쪼록 지금 이 순간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머님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못한 자식을 염려하시지 마시고 형, 누나들이 모두 화목한 생활을 해 주셨으면 저는 더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친구 부모님

들과 상의하셔서 변호사 선임은 돈을 많이 주고 살 것 없이 국선 변호인으로 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동안 책이나 열심히 읽고 앞으로 살아 갈 방법에 대한 모색을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출세를 해서 어머님을 복되게 해드리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하에서 공부하는 처지이고 누구보다 형, 누나들의 사랑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혼자 울어도 보고 잠을 못이룬 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알면서 그냥 죽은 듯이 공부를 하고 일인의 영예를 위해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해도 지금은 별로 위안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자주 연락을 드리면서 얘기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1월 15일 경에 오시고 누나들도 연말연시에는 교통편이 불편하니 오지 말고 3월초 첫 공판할 때나 오도록 연락해 주십시오.

형, 누나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위한다고 할지라도 형이나 누나로부터는 욕을 들을 만하다고 인정합니다. 동생 공부시키느라고 고생해가며 남들처럼 여유있게 생활하지도 못한 채 나에게 쏟아준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어머니 건강이니 나를 대신해서 내 몫까지 효도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운동 열심히 하고 혼자 조용히 책이나 읽고 마음을 정리하겠습니다.

책목록: 책은 보통 평론집은 3일에 한 권 소설은 하루에 한 권 정도 읽음

소설: 토지 (박경리작)를 다음에 어머니 오실 때 보내주고 자세한 것은 국회나 약혼녀가 오면 전달하도록 합시다.

특히 숙부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고 집에서 편지할 때 주소 좀 부탁드립니다. 주소는 걸봉에 있는 대로 쓰입니다. 편지는 검열이 됩니다.

그럼 이만 쓰겠습니다. 어머니 부디 몸조심하시고 연락오는 곳이 있으면 안부 전해 주세요.

12. 15. 종원



1958년 10월 3일 전남 광주 출생
 1974년 2월 서울 경신중학교 졸업
 1975년~76년 청계노조 활동
 1976~1979년 인천에서 신문팔이 및 Y셔츠장사 등에 종사
 1979년 방위병 입대
 1982년 8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1984년 경원대학 법학과 입학
 1984년 2학기 실존주의 철학연구회 창설
 1985년 1학기 경제문제연구회 창설
 1985년 9월 17일 군사독재에 항거 분신
 1985년 10월 21일 새벽 1시45분경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85년 9월17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분신을 한 그는 "학원악법 철폐하고 독재정권 물러가라!",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질주하다 쓰러졌다. 9월18일 병상에 찾아온 민주인사와 학생에게 "왜 오셨습니까 오시지 말고 밖에서 싸워 주십시오"라며 투쟁을 독려했다. 10월21일 새벽에 운명하였고, 학교에서는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분향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장례식 또한 경찰의 방해로 영결식 없이 매장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한없이 보고 싶은 광영아!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잊을는지...

눈만 감아도 너의 모습이 나를 찾아오는구나.

먹을 것, 입힐 것이 제대로 없어 너를 고생시키며 키운 일이 어미를 아프게 하고, 병상에서 그토록 아픔을 참으면서 투병하던 너의 모습을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는구나.

너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어미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씨가 나듯이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낳는 씨앗이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보고 싶음을 위로하고 싶구나

배운 것 없는 이 어미는 네가 죽었을 당시는 많은

고생으로 너를 키운 어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미를 두고 간 네가 밋기만 하였지만 너의 장례식 때 경찰들과 싸우면서 네가 왜 죽어야 했는지 어렵듯이나 알 것 같구나

과연 어떤 사람이 민족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없는 자를 보면 돕고 싶어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를 위해 10일동안 몸을 돌보지 않고 뛰어 다니던 모습, 학원 다닐 때 장학금을 타서 신문팔이 소년을 주고 왔다 말하던 모습, 어미의 팔, 다리를 주무르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꼭 효도할게요 하던 네 모습 너의 육체는 비록 어미 곁을 떠났지만 영혼 만큼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이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너의 뜻을 이루어 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보고 싶구나 광영아.

<송광영 동지의 어머니 이오순 여사가 쓴 글>

◎ 추모글

<당시 유인물>

아! 송광영 동지여! 우리의 투사여!

-송광영 동지의 뜻을 받들어 학원 안정법 제정을 온몸으로 분쇄하자-

9월17일 오후 2시30분경 경원대학 법학과 2학년인 송광영군이 온몸에 석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을 기도했다. 그는 몸에 불을 붙인 채 시커먼 연기를 뒤로 하고 달려나가며 "학원안정법 철폐하고 학원 탄압 중지하

라" "민중생존권 수호하고 독재정권 타도하자"고 외치며 학교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진압한 뒤에 온몸이 처절하리 만큼 불타 쓰러져서도 "학원 안정법 철폐하라!", "학원 탄압 중지하라!", "군부독재 물러가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댔다.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애국가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여 주위에 모인 학우들이 혹은 울며 혹은 무릎을 꿇은 채 어깨를 걸고 쏟아지는 빗속을 뛰면서 그의 유언일지도 모르는 "학원 안정법 철폐하라, 민중 생존권 수호하라, 군부독재 물러가라"라는 시위를 벌였다.

그는 전남 광주에서 1958년에 태어났다. 그는 검정고시 출신이었으며, 중졸 후 평화시장 통일사당에서 재단사로 일했다. 회사 재직시에도 민중 생존권 수호를 위해 활발한 노조 활동을 했다. 그는 동지들과 모인 자리이면 언제나 광주 학살에 대한 현 정권의 책임을 묻고 즉각 퇴진을 요구했었다. 그의 분신은 민중의 모든 삶에 기생하는 매관 세력과 그들에 의해 조정되는 매관료들과 잔악한 현 군부 독재정권에 대한 치절한 항거였으며, 어용 언론에 눈먼 대중과 학우들에 대한

피맺힌 절규였다. 그는 지금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에 의해 성남병원에서 서울대병원을 거쳐 기독교병원에 감금되어 있다. 저들은 그의 빛나는 투쟁이 알려지는게 두려운 것이다. 저들의 저지를 뚫고 그를 방문한 친지 동료들에 의하면 그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붓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으면서도 "독재정권 물러가라", "학원 안정법 철폐하라!", "민중생존권 보장하라!"고 외쳐대고 있다 한다.

아! 송광영 동지여 우리의 투사여!

우리는 당신의 투쟁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뜻에 따라 저 잔악한 전두환 독재정권의 타도를 위해 온몸을 불사를 것이다.

이 땅의 모든 학생, 노동자, 민주 인사들이여 송광영 동지의 뜻을 받들어 "학원 안정법 제정"을 온몸으로 분쇄하자.

송광영 동지 만세!!

1985년 9월20일
 경원대 민주학우 일동



김 세 진 (당시 21세)

墓 판교 공원 묘원



- 1965년 2월 2일 충북 충주 출생
- 1983년 2월 28일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83년 3월 1일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자연 4계열 입학
- 1984년 3월 서울대 자연대학 미생물학과 진입
- 1984년 7월 감리교 자교교회 청년회장
- 1985년 3월 자연대학생회 부학생회장 및 미생물학과 학회장
- 1986년 3월 자연대학 학생회 학생회장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대표
- 1986년 4월 28일 전방입소 결사반대 및 반전반핵 양키고함을 외치며 분신
- 1986년 5월 3일 운명
- 1986년 5월 5일 광주군 노포면 판교공원 묘지 잠미묘역에 영면하심

이 재 호 (당시 21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 열사 묘역



- 1965년 3월 15일 전남 광주 출생
- 1983년 2월 광주 송원고등학교 졸업
- 1983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입학
- 1986년 3월 18일 반미 자주화 반파소 민주화 투쟁위원회 산하 '반전반핵 평화운동 투쟁위원회' 위원장
- 1986년 4월 28일 전방입소 결사반대 및 반전반핵 양키고함을 외치며 분신
- 1986년 5월 26일 한강성심병원에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86년 4월 28일 아침 9시 30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 4거리 가야소피센터 앞에서 서울대 총학생회 주관으로 400여명의 서울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반전반핵 양키고함"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를 외치며 가두투쟁을 전개하였다. 반전반핵 투쟁위원장 이재호, 자연대 학생회장 김세진 동지는 전방입소 거부투쟁을 지도하던 중 예식장 옆 3층진물 옥상에서 온몸에 신나를 뿌리며 강제진압하려는 폭력경찰에 경고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폭력경찰의 강제진압 도중, 두 동지는

분신으로써 항거하였다. 시뻘건 불속에서 "양키고함"을 외치던 이재호 동지는 추락하여 10분간이나 방치된 채 감을 수 없는 눈을 감고 말았다. 이재호 동지는 전신 80%이상의 3도 화상을 입었으며, 김세진 동지는 전신 60%의 3도화상을 입었다. 몇몇 병원을 전전하다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두 동지의 상태는 절망적이었다. 병원 주변은 전경차량 6대와 사복경찰버스 2대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출입을 막았다. 미제의 예속 정권은 1981년부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양키의 용병교육인 전방입소 훈련을 강제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이에 두사

람은 "전방입소 훈련 전면거부 및 한반도 미제 군사기치화 결사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미군을 철수시켜 전쟁을 방지하고, 핵전쟁의 참화로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미제의 예속과 억압을 뚫고 자유와 해방을 찾기 위해 최선봉에서 투쟁한 것이다. 김세진 동지는 5월 3일, 이재호 동지는 5월 26일 운명하였다. 이 투쟁을 계기로 반미구국투쟁은 급속히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한국의 운동사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동지를 생각하며

열사여 그대 누울 곳은
매캐한 최루탄 냄새가 진동하고
사월 피빛이 붉어가는 가운데도
모두 가지를 향해 돌아앉은 듯 삭막한 이 곳
그대가 민족의 한과 민중의 삶을 되찾던 이 곳에서
그대 누울 곳을 찾읍니다.

양키의 정액반이라는 글래를 쓴 채
누이는 제국의 병 '에이즈' 하치장으로 떨어지고
형은 아직도 제국의 역사읽기를 멈추지 못하고 있
읍니다.

열사여 그대 누울 곳은
쉽디 설운 누이의 자궁과 형의 역사서일 것입니다.

지금 햇살같은 웃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
니다.

맛당은 가슴마다

굳게 건 어깨마다

살아오는 새 날의 희망에 파안대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대 누울 곳을 찾읍니다.

열사여 그대 누울 곳은
불순분자의 난동에 겨누어진다는 칼빈총 앞에
여지없이 드러난 그들의 작은 희망
여지없이 산산조각날 그들의 넓은 가슴
바로 거기여야 합니다.

붉게 문드러진 그대 몸의 누울 곳은
민족의 피가 거침없이 흐르는 이 산하
바로 우리가 함께 누울 그 곳입니다.
열사여.

-서울대 반도문학회 공동창작-

◎ 유고글

<마지막 편지>

대학에 들어와 저는 인간과 세계에 대해 고민을 했
습니다. 눈앞에서 개패듯이 끌려나는 선배와 동료들 바
라보며 저는 우리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고민으로 밤
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땅 가난의
원흉은, 뼈아픈 분단의 창출자는, 압살되는 자유의 원인
은 바로 이 땅을 억압하고 자신의 대소 군사기치화, 신
식민지화시킨 외세이며, 그 대리통치 세력인 군사파쇼
라는 것을. 저의 대학생살은 인간의 해방과 민중의 해
방, 그리고 민족의 해방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의 과정
이었으며, 그것의 쟁취를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중략...

민중은 바로 자신의 권력을 원합니다. 그리고 끝내
는 권력을 쟁취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합법적성이고, 인간존재의 합목적성
입니다.

저의 행위는 한 순간의 영웅심이나, 학생회장이라
는 것 때문에 억지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읽은 수백권의 책과 객관적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고뇌하며 오랜시간 고민하여 얻은 결론입니
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믿어주십시오.

...중략...

해방된 조국의 땅에서 자랑스러운 아들임을 가슴
뿌듯하게 느낄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투쟁 속에서 그 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1986. 4. 26. 세진 올림

<김세진 동지의 마지막 편지 중에서>

<마지막 편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저는 현재 부모님께서 염려해주신 덕택으로 의식.
주에 큰 어려움은 겪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행동거지
가 꼭 부담스러운 까닭에 원하는 공부를 깊게 할 수 없

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은 역할을 분명히 수행, 책임지고 난 다음 틈틈이 독서를 함으로써 자신의 방만함과 타락의 씨앗을 근원에서부터 제거하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물질적 봉양만으로 생각치 않고 있으며 효도는 첫째, 올바르게 사회에 봉사하는 의연한 삶을 개척하는 것 둘째, '승리'로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힘든 결단을 가능케 하였으며 현재의 생활을 지탱해 주는 절대적 기초입니다. 물론 예고 없는 저의 결단으로 인한 충격에서 오는 부모님의 슬픔과 노여움에 고개를 떨구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과 행동이 결코 공허한 불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이 장기적 전망과 믿음 속에서 증명되는 날, 기쁨의 해후를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버님께서 제가 어떻게 된다면 화병이 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젊으셨을 때 활동으로부터, 아버님의 의연하심으로부터, 저는 최근의 문제가 사소한 것으로 간주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제가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저는 자신감을 상실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패배라는 묘비명을 남길 뿐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기쁨과 슬픔을 포용으로 표현한다지만, 역사적으로 우리집에서의 정(情)과 한(恨)의 응어리짐들은 가장 솔직한 삶을 서로 드러낼수 있는 것에 의해 하나하나 풀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자신의 삶을 준비해왔고, 비로소 드러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님과 동생들에게는 의연함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의 생활과 주변에 관계되는 것들은 스스로 해 나갈 수 있으므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편지를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운 날짜에 다시 연락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건강히 계십시오.

1986년 4월 2일 저녁 12시

서울에서 재호 올림

(이재호 동지의 마지막 편지 중에서)

이 동 수 (당시 24세)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경기도등학교 졸업
1981년 3월	숭실대학교 입학
1983년	서울대 농대 원예학과 입학
1983년 4월	군입대
1985년 10월	군제대
1986년 5월 20일	서울대 학생회관 4층에서 분신,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86년 5월 20일 오후 3시 30분경 오월제 행사 가운데 문익환 목사님의 연설 중 학생회관 4층 옥상 난간에 서 구호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미제국주의 물러가라", "어용교수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이동수 동지가 불덩어리가 되어 떨어졌다.

아크로폴리스에 모여 있던 학생들은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극도의 놀람과 흥분에 휩싸였다. 7m 아래로 떨어져서도 한동안 불길이 오르다가 동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위에 쏟아지는 최루탄의 매운 연기, 폭발음,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아크로폴리스를 향한 곳곳의 통로에서 색색의 헬멧을 쓴 사복 기관원들과 중무장한 전경들이 들이닥쳤다.

김세진, 이재호 동지의 분신투쟁이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동수 동지의 돌발적인 분신은 많은 학우들을 극도의 비분속으로 몰아넣었다. 학내 곳곳에 흩어진 학생들은 다시 열을 지어 전경들과 싸웠고 그들은 최루탄이 매서워가 아니라 조국의 현실이 가슴아파 진한 눈물을 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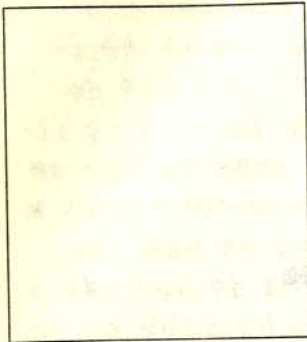
동지는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오후 4시경 운명했다.

◎ 동지를 생각하며

동지의 수첩에 적힌 글들이 공개되어 동지가 고민한 흔적을 함께 할 수 있었다. 다음은 동지의 수첩에 기록되어 있던 글이다.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없을 때 인간은 노예가 된다... 민중은 말이 없지만, 또 우둔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역사만이 나의 몸부림을 심판해줄 것이다... 학우 여러분, 일본을 재조명합시다... 요즘같이 썩어빠진 군대가 어디 있는가? 주관을 갖고 군대생활해, 잡새들이여. 경찰이라는 놈들도 자신을 속이는 짓을 하지 말지어다. 파쇼주구의 노리게들이 작성하라. 오늘 파쇼주구 미제는 물러가라. 파쇼선봉 전두환을 타도하자. 최저임금제 보장하라. 광주항쟁 되살리라..."

박혜정 (당시 21세)



1965년 1월 19일 서울 출생
 1983년 신광 여자고등학교 졸업
 1983년 3월 서울대학교 인문대 어문계열 입학
 1984년 국어국문학 전공
 1986년 5월 21일 한강에서 투신

◎ 동지의 삶과 죽음

1986년 4월28일 이재호, 김세진 동지가 양키용병교육 결사반대를 외치며 분신하자, 자신의 한계를 던고 변혁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 새로운 열의로 발걸음을 내딛은 그는 5월20일 '문익환 목사님 초청 강연회' 도중 교내까지 들어온 전경들과 운집한 학우들앞에서 이동수 동지가 불덩어리가 되어 투신하신 것을 목격하고, "우리 그리고 내 힘이 현 사회를 변혁시키기에는 너무 무력하다"며 괴로워 했다. 하루 뒤인 5월21일 그는 한강에 몸을 던졌고, 22일 상오10시30분경 동작대교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진실에 눈을 뜨고 진실을 실천하기 위한 솔한 고민과 몸부림 끝에 그는 떠나갔다.

◎ 동지를 생각하며

동지는 중산층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문학에 꿈을 둔 조용한 학생으로 성장하였으며 83년 서울대에 입학하였다.

80년대의 암울한 정치상황은 학원도 예외일 수 없어서 군부독재의 근화발은 아크로폴리스(서울대 민주광장)와 도서관, 그리고 학생들의 가슴속까지 깃뚫아 들어왔으며 80년 5월 광주의 피의 진실은 억눌린 민주주의 안에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대학생활을 통해 동지는 점차 사회의 모순을 알게 되고 나아가 문제해결을 위해 벗들과 함께 학습토론을 시작하면서 삶의 건강성을 체득하기 시작하였지만 수

많은 갈등과 두려움으로 고뇌했다. 그러던 중 가두시위에서 연행되어 구류 사흘을 받았는데 관악서 유치장에서의 3일간은 모순된 현실을 변혁하기 위한 운동의 당위성과 이를 실현해나가는 자신의 불철저함, 나약함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련을 더욱 가혹하게 던져주었다.

그러나 동지는 혼란과 갈등, 좌절과 다시 일어섬의 반복과정을 겪으면서도 진정 진실되고 용기있는 삶을 꾸리기 위해 몸부림쳤다.

1986년 봄 대학가는 전방입소거부투쟁의 불길이 치솟았고 4월28일 서울대의 이재호·김세진 동지 양키용병교육 결사반대를 외치며 분신했다. 자신의 한계를 던고 변혁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 새로운 열의로 발걸음을 내딛은 동지는 5월19일 '문익환 목사님 초청강연회' 도중 교내까지 들어온 전경들과 운집한 학우들앞에서 이동수 동지가 불덩어리가 되어 투신하는걸 목격하고 "우리 그리고 내 힘이 현사회를 변혁시키기에 너무 무력하다"며 괴로워했다.

5월21일 박혜정 동지는 한강에서 몸을 던졌고 22일 상오 10시30분경 동작대교 부근에서 숨진채 발견되었다. 투신하기 직전에 쓴 자필유서에는

"분신자살로 치닫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 아파하면서 살아갈 용기 없는 자, 부끄럽게 죽을 것, 살아감의 아픔을 함께 할 자신 없는자, 부끄러운 삶일 뿐 아니라 죄지음, 이 땅의 없는 자, 억눌린 자, 부당하게 빼앗김의 방관, 더 보태어 함께 빼앗음의 죄, 더 이상 죄지음

의 빛짐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진실에 눈을 뜨고 진실을 실천하기 위한 솔한 고민과 몸부림 끝에 동지는 떠나갔다.

◎ 유고글

(유서)

솔한 언어들속에 나의 보잘 것 없는 한 마디가 보태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러나 다른 솔한 언어가 그 인간의 것이듯, 나의 언어는 나의 것으로, 나는 나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겠지.

~야, 뭘 할 수 있겠니. 내가 지긋지긋하게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음을 내가 모르지 않을진데 요구하지마, 요구하지마! 강요하지 말 것.

구체적인 것이다. 산다는 건, 살지 않더라도, 사는 것 같지 않더라도 숨쉬는 건 구체적인 것이다.

허파와 기관지와 목구멍과 코와 입으로 숨쉬고 있지 않니.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끊고 살까? 없었던 걸로?

떠남이 아름다운 모오든 것들.
 피로운 척, 괴로워 하는 척 하지 말 것.
 소주 몇 잔에 취한 척도 말고 사랑하는 척.
 그래 이게 가장 위대한 기만이지. 사랑하는 척. 죽을 수 있는 척.

왜 죽을 수 없을까? 왜 죽지 않을까?

자살하지 못하는 건, 자살할 이유가 뚜렷한데 않는 건 비겁하지만 자살은 뭔가 괴롭치하다. 함께 괴로워하다가 함께 절망하다가 혼자 빠져버리다니. 혼자 자살로 도피해 버리다니.

反省하지 않는 삶. 反省하기 두려운 삶.
 反省은 무섭다. 그래서 뻔뻔스럽다. 낮잠 두꺼워지는 ...

아파하면서 살아갈 용기 없는 자, 부끄럽게 죽을 것.

살아감의 아픔을 함께 할 자신 없는 자.
 부끄러운 삶일 뿐 아니라 죄지음이다.
 절망과 무기력, 이땅의 없는 자 억눌린 자 부당하게

빼앗김의 방관,
 덧보태어 함께 빼앗음의 죄,
 더 이상 죄지음을 빛짐을 감당할 수 없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부끄럽다
 사랑하지 못했던 빛 값음일 뿐이다.
 앞으로도 사랑할 수 없기에.

욕해주기를... 모든 관계의 방기의 죄를,
 제발 나를 욕해 주기를, 욕하고 잇기를...

86. 5. 21.

이 경 환 (당시 19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 열사 묘역



1967년 9월 경기도 양주군 출생
 1986년 2월 창원 남고등학교 졸업
 서울 대성학원 입학
 1986년 6월 5일 청량리 맘모스호텔 옥상에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투신하여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67년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난 이경환 동지는 1986년 6월 서울 청량리 맘모스 호텔 옥상에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투신했다. 동지의 마지막 일기에서 선생님들을 비롯한 기성세대들의 이기주의와 무관심을 비판하면서 조국 사랑의 순수한 열정으로 사회모순에 대해 가슴아파했다. 굶주리는 노동자, 농민들을 걱정하고 미제국주의를 비판하여 핵제물이 되어가는 이 땅에서 할 말을 못해 가슴은 막히고, 듣지 못해 귀는 멀고, 말을 못해 병어리 되고, 볼 수 없어 눈이 머는 세상을 가슴으로 움켜쥐고 슬퍼하면서 암흑의 땅을 한줄기 호롱 불되어 밝히고자 했다.

◎ 동지를 생각하며

〈큰형 이성환씨의 글〉

...생략...

그해 5월은 이땅의 반외세, 반독재, 반독점 투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4월에 들어 성대의 전방 입소 거부투쟁으로 점화된 불꽃은 다시 서울대의 전방 입소 거부, 의대 도서관 점거기도로 이어졌고, 5월에 들어서서는 5.3 인천사태, 부산 미문화원 점거, 한미은행 점거 등 잇달아 신문의 모두를 차지하는 커다란 사건들이 일어났다.

마산에서 그저 가끔 텔레비전 뉴스나 보면서 나름대로 세상 돌아가는 형세를 판단해 왔던 경환이에게

있어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형들의 생생한 견해와 함께 접하게 된 것은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환이에게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된 것은 바로 이재호·김세진, 이동수, 박혜정 등 네 서울대학생들의 죽음이었다. 그들의 분신, 투신자살이 일어날 때마다 경환이가 왜 그들이 죽음을 택해야만 했으며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근본원인이 무엇인가를 처절하도록 깊이 생각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원인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미,일 외세와 이에 영합하여 민중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군사독재정권 및 매판 독점자본이라는 결론을 스스로 얻어냈던 듯하다. 이어서는 현재의 이와같은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 집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민중의 힘을 결집시키는 방법밖에 없으며 잠자고 있는 민중의 저항의지를 일깨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현시점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하다가 치열한 내면의 갈등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이 한알의 밀알이 되리라고 결심하게 된 것이다.

〈유 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못난 자식 끝까지 속만 썩혀드리다 가는군요. 그래도 한 번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현실과 타협하기란 쉽지 않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좋은 대학가서 훌륭히, 성공해서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보려 했는데, 적어도 작년까지는 말이예요. 그러나 이제는 자꾸만 회의를 느껴요. 만약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해도 맨날 어머니 속만 썩혀 드릴 것 같고, 온전히 졸업할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제가 먼저 가는 것이 불효중에서도 가장 큰 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지력이 약한 저로서는 도저히 버티나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죽더라도 상심마시고, 원래 없던 자식이라 생각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우리만 믿고 살아오신 어머니께 너무나 큰 충격이 되리란 건 알고 있지만, 못난 놈, 현실과 타협하며 살기엔 너무나 못난 놈인가봐요. 저!

어머니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어머니께서 바로 이 모순많은 불평등의 극치를 달리는 사회의 희생자이시니까요.

일한 만큼의 대가도 안 나오는 이 세상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수 많은 노동자, 농민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힘센 자들은 무조건 억누르려고만 합니다. 거기에 항의하지도 못하고 속만 썩혀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록 고기장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꾀꿉이, 올바르게 살아오신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모시고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려했는데.....

〈마지막 일기〉

6월 4日 水

괴롭다.

미치겠다.

가슴이 터질것만 같다.

왜 그렇게 몰라주는 것일까.

소위 배웠다는, 선생이라는 작자가 과연 그런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답답하다.

어디다 같이 이야기하며 답답한 마음을 풀 사람이

없다.

결국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일까. 최후까지 투쟁하려 했는데...

윤리시간에 소위 윤리' 선생'이란 자가 이런 말을 했다. "왜 '분신'을 하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민주주의가 될텐데..."

아이들은 웃었다.

그러나,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런말을 할 수 있는지 저런 자가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게 됐는지.

바로 이것이 이 사회의 모순이다.

크나 큰 모순 덩어리.

세상에서 가만히 앉아서 된다면, 3.1운동이 왜 일어났으며 4.19가 왜 일어났던가.

부마 사태가 왜 일어났고, 광주여거가 왜 일어나야만 했는가

가만히 앉아서 될일 같으면

...중략...

노동자는 굶주리고 농민은 죽어간다.

도대체 열 몇시간씩 일하면서, 1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어떻게 살란 말인가.

누구는 한번에 몇십만원자리 옷 사입고, 누구는 옷이 없어 사시사철 한가지 옷으로 지내야하는가!

누구는 돈이 많아 승용차 몰고 다니며, 누구는 돈이 없어 걸어야 하는가! 너무나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기에는 너무 벅차다.

대통령 같잖은 자가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놈들이 국회의원을 하는 이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은 무엇일까?

할 말을 못해 가슴은 막히고

듣지 못해 귀는 멀고

말을 못해 병어리 되고

볼 수 없어 눈이 머는 세상을 그저 아무 저항없이 그저 그렇게 쫓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이기주의자 미국놈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한나라를 핵의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놈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 나라를 보호해 달랄 수 있겠는가.

또, 그런 놈들에게 아부해서 정권을 계속 부지해 보겠다는 오히려 그런 놈들보다 더 나쁜놈 밑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나라를 미국의 51번째주로 만들려는 한 치 앞을 못보는 놈들, 51번째의 의미가 뭔데, 끝은 언제나 쉽게 떨어버린다.

앞의 것을 위하여 뒤의 것은 언제나 희생된다.

우리나라가 미국놈들을 위해 핵의 제물로 바쳐져도 종단 말인가?

어둡다.

암흑뿐이다.

저 멀리 한줄기 가느다란 불빛이 보인다지만 너무 작다.

한 줄기의 호롱불로 이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다.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밝을 뿐 저 멀리까지 비취줄 수는 없다.

더 밝은 불빛을 찾아야 한다.

아니, 우리가 밝혀야 한다.

그 불을 밝히기 위해 많은 불나방들이 자기몸을 희생하고 있다.

결코 우매한 게 아니다.

불을 보고 어리석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가없는 物들의 더 많은 희생을 막는 것이다.

다른 가없는 존재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기 한몸을 희생하는 것이다.

더 큰 '나'인 민중을 위해...

두렵다 이렇게 가슴이 떨려본 적은 없다.

앞서간 동지들이 얼마나 마음을 굳게 가지셨는지 알 것 같다.

불쌍하신 우리 어머니, 만약 내가...

어머니는...

하지만, 안된다. 마음을 굳혀서는...

더 큰 어머니를 위해...

김성수 (당시 18세)



1968년 4월 15일

출생

1966년 2월

강릉고 졸업

서울대 사회과학대 입학

총학생회 연극부에 가입하여 활동

1966년 6월 18일

행방불명

1966년 6월 21일

부산송도 앞바다속에 시멘트덩이를 매단 채 죽어있는 것을 잠수부가 발견함

◎ 사건경위

시위중 두번 연행되어 혼방된 일이 있었던 그는 1학기 시험준비를 하던 중 86년 6월18일 자취방으로 걸려온 전라도 말씨를 쓰는 정체불명의 사람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간 후 행방불명 되었고, 그후 3일 후인 6월21일 부산 송도 앞바다 방파제 앞 수심 17m 지점에서 스쿠버다이버 최영봉씨에 의해 바위틈에 세계의 시멘트 덩어리를 달고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 22일 경찰에 의해 인양되었다. 경찰은 성적 불량에 의한 비판자살로 처리해 버렸으나, 1학년 1학기도 끝내지 않은 그가 성적을 비판할 리 없으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이 유가 없고, 두부에 정교하게 가격당한 상처가 있는 점, 안기부가 사건의 전반에 개입하고 있는 점 등, 그의 죽음의 진상은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 의문점

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최종적으로 발표한 수사 결과는 김동지의 죽음을 익사에 의한 죽음으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사건 자체를 그것의 경과에 따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 자체에 대한 의문점과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경찰 당국의 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밝혀 낼 수 있다.

① 사건 자체의 경과에 따른 의문점- 자살로 단정한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② 사건 당일까지의 그의 생활에서 자살의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사건 당일까지도 기말고사를 대비해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으며, 가출일

인 18일에는 당일 오전11시에 치러질 교련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원만한 교우 관계와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

③ 사건의 발단이 자취방으로 18일 오전 10시경에 '서울대생'을 찾는 전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 전화를 받고 실종되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는 이 의문의 전화를 걸었던 사람의 정체(파악)에서 비롯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

④ 시체가 발견된 부산 송도 앞바다는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이고 초행 일뿐더러 당시 소지했던 용돈(5,000원 내외)은 부산까지 도착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게된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다.

⑤ 사체 인양 과정을 목격했던 백길영(바다횃집 '대구집' 주인)씨에 따르면 사건 현장은 지금까지 자살한 사람이 전혀 없을뿐더러 해안으로부터 10m가량 떨어진 수심이 17m 나 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자살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건 현장은 매립지를 끼고 있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높이 3미터 정도의 방파제로 막혀있고 그로부터 바닷물까지는 5-7미터 정도의 수초가 펼쳐져 있다. 따라서 무거운 시멘트 덩이를 몸에 매단 채 사망 추정 시간인 밤 11시에서 익일 오전 2시 사이에 위와 같은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⑥ 사체 인양자인 스쿠버 다이버 최영봉(31세)씨에 따르면 사체는 수초가 끝나는 12미터 정도의 바닷속에

서 1미터 정도 뜬채로 발견되었고 안경이 깨어져 있었고, 상하의와 신발도 입혀진 채였으며, 신체 상태 또한 전혀 이상이 없었고 사체는 시멘트 덩이에 매달린 채로 마치 고스란히 옮겨 놓은 듯한 인상을 깊게 느꼈다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자살자들이 일반적으로 최후의 순간에 직면하는 고통의 몸부림을 설명할 수 없다.

㉔ 사체부검시 참관자인 부산일보 장병호 기자에 따르면 외상은 전혀 없었으나 두피절개 결과 두피하 출혈 20cc의 상처 - 세로 5센티미터, 가로 상부3cm, 가로하부 1cm의 일직선 썩기모양-가 발견되었고 이것은 단순한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교한 타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단순한 익사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원인에 의한 죽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㉕ 사체 부검이 유가족 부재시에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원칙상 보호자 입회하에 부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검은 보호자가 현지에 도착하기 전인 6월23일 하오에 이미 실시되었고 이것은 그 자체의 이례성과 더불어 사인에 대한 또다른 의문을 제기한다.

㉖ 사전경과 및 수사 과정에서 경찰 및 정보기관의 태도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

- 공권력 개입 가능성과 관련하여.

㉗ 부산 경찰이 사망자의 유류품에서 사진 인화권을 찾아 그것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을 치안본부에 조회하여 아버지를 통해 직접 신원을 확인한 것은 23일 오후 10시-11시, 2차레씩 걸려왔고 경찰이 직접 집을 찾아와서 그가 학업에 소홀하다는 등의 정보원을 부모의 공식적인 확인 이전에 알 수 있었는가가 의문이다. 더군다나 질문 내용에서 단순한 실종자 신원확인의 차원을 떠나 집안 사정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듯한 유도성 질문을 많이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㉘ 신원이 확인된 후 6월 24일 오전 중에 경찰이 그의 고교 3년 담임교사를 찾아가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성수가 공부를 소홀히 한 것 같다"라고 했다. 이 발언은 할머니 자신이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 이것은 애초부터 '자살'이라는 방향으로 사건을 수사하려는 경찰의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7월 10일에 종결된 수사 발표는 6월 23-24일 사건 초기에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㉙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가족들은 지속적인 감시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그 일례로 전화의 상태가 사건을 전후로하여 현저히 다르고 -전화를 받는 가족들

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으나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잘 들리지 않음- 전신전화국으로부터의 이유없는 전화번호 확인이 있었고 가족들이 외출시 미행당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한다.

◎ 유고글

<편 지>

어머니 받아보세요.

제가 집을 떠나 생활한지도 오늘로 한달 가까이 되는군요. 여기는 누나와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고있는 자취방이 아닙니다. 오늘로 3일째 문무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문무대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지요?

대학생 병영훈련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5박6일간 군생활과 똑같은 환경속에서 10시까지 죽도록 힘들게 훈련받고 6시에는 어김없이 일어나고 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격훈련을 받았답니다.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인데 줄하나에 매달려서 계곡을 건너고(비록 아래에 그물이 쳐져 있었지만) 허리까지 차는 물웅덩이에 빠지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들은 거뜬합니다.

한군데 아픈데 없이 쉼없이 훈련을 해내고 있습니다. 또, 어찌다가 42명이나 되는 소대를 인솔하는 소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코 뜰새없이 바쁘긴 하지만 보람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할머니 건강이 항상 걱정돼요. 성은이는 잘하고 있지요? 형이 매일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생각하는 줄 잘 아시죠? 누나랑 같이 살때는 잘 몰랐는데, 혼자 떨어져 사니까,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는군요. 기왕에 쓰는 편지니까, 누나랑 어떻게 사는지 알려드릴게요. 누나 잘 하는거 아시죠? 반찬을 워낙 잘 해워서 살이 퍼들퍼들 썰 것 같아요. 이웃들도 좋고해서 누나는 계속 있기로 마음 먹었던데요. 저희들 사는건 걱정 많으셔도 돼요.

어머니! 할머니, 성은이 모두 건강하게 있어요.

이만 줄일게요.

1대대 4중대 2소대 3대부반에서 아들 성수가

진 성 일 (당시 22세)

慕 경성대 교정에 추모비



1964년 1월 26일 부산 출생
1982년 2월 동래고등학교 졸업
1982년 3월 경성대학교(구 부산산업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입학
1986년 행정학과 복학
1986년 11월 5일 건국대학교 농성사건 해명, 군부독재타도, 미제국주의 축출'의 유서를 뿌리고 시청각관 5층에서 분신, 투신

◎ 동지의 삶과 죽음

진성일 동지는 중산계층의 여유있는 분위기에서 효성과 형제애가 지극한 장남으로 자랐고, 군입대를 계기로 사회적 인식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12. 12 총선에서 특정인과 특정정당에 대한 편파적 흑색선전과 민정당 지지를 강요하자 군에서의 교육에 거부감을 품게 된다. 이를 계기로 5공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대해 심한 반감을 품고 복학한다. 애학투의 건대 농성투쟁에서 '황소진압작전'이라는 살인적 테러로 학생들을 진압하고 관제언론에서는 공산혁명분자의 난동이라고 왜곡 보도하는 속에서도 침묵뿐인 산업대 학우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86년 11월5일 "건국대 농성사건에 즈음하여"와 "산대 학우에게"라는 유서를 뿌리고 이 시대의 침묵과 어둠을 사르려 분신, 투신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조 사>

성일아 보아라. 너의 그 의로운 뜻을 이어받아 우리가 투쟁의 대열을 이루고 전진하는 것을. 그리고 그 대열의 선봉에 언제나 네가 있다. 성일아 이제 투쟁이다. 장래도 치르지 못하고 한 줌 재로 사라진 너의 피땀 어린한을 풀기 위해, 네가 그렇게 갈구했던 통일과 해방을 위해, 파쇼의 완전한 괴멸과 미제국주의의 추방을 위해 우리는 떨쳐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성일아 한반도가 통일되고 민중이 해방의 춤바람을 일으키는 날

부활하여라. 너의 무덤은 황령산. 너의 무덤은 용연벌, 너의 무덤은 한반도다. 성일아 한반도가 해방되는 그날 너의 무덤은 열리고 너는 죽음의 사슬을 끊고 부활하여라.

그리하여 죽어 넘어진 저 군사파쇼의 썩어 문드러진 송장위에서 우리 한번 멋드러지게 웃어보자. ◎겨 달아나는 쪽발이 양키놈들을 손가락질하며 해방춤을 신바람나게 추어보자꾸나.

◎ 유고글

<유 서 1>

산대 학우에게

10월29일 서울에는 대학가 특히 건국대와 부산의 부산대, 동아대 모두 민주를 위해, 민중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산대는 대동제니 하면서 회열에 빠져 있었다.

산대인이여 우리 똑같은 대한민국 대학생으로서 진실을 보고 외면 하여서는 안된다.

똑같이 눈을 뜨고 진리를 위해 우리 싸우자

어떤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 땅에 암흑을 모조리 몰아내자

그리고, 어용 총단을 물러가게 하자

진정 학원의 민주화가 무엇인가 짐승은 행동을 학생들에게 행해도 그냥 묵과할 수 있겠는가

요번 기회에 어용총단을 뿌리 뽑아 민주 대열에 앞

장설 수 있는 우리의 친구를 선출해 내자.

산대인이여!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가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 앞장서서 나갑시다.

“민족분단 영구화하는 군부독재 물러가라”

“민족의 피 빨아 먹는 미 제국주의 물러가라”

86.11.5 뿌려진 유서

<유 서 2>

“건국대 농성사건에 즈음하여”

우리 학우들이 용공이니 공산혁명분자로 몰리고 있다.

도둑이 제발 저런다고 손가락 하나 다치면

팔전체를 잘라내는 그런 식이 되고 있다.

「건국대 농성사건의 1천 2백 87명 우리학우 여러분

새날이 올때까지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주위에는 진정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기와 힘을 잃지 마십시오」

저 비록 미약한 존재지만 격분을 참을 길 없어

여러 친구들 보다 먼저 갑니다.

부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싸우십시오

승리할 그날까지...

“건국대 농성사건 진상보고하라”

“군부독재 물러가라”

“파쇼타도”

◎ 추모글

<시>

새로운 사회를 쟁취할 때까지, 해방의
그날까지!

진성일 동지!

유복한 가정에서

곱게 자란 그대

가족을 남달리

사랑했던 그대

이땅의 억압받는

민중의 고통을

가슴아파했던.

정의와 진리를 따르려 했던 그대,

이제,

미제의 대리정권 군사파쇼의

살인적 폭압에 맞서 이 시대의

침묵과 어둠을 사르려 그대 육신에

불을 붙였다

사천만의 불길로 타올라라!

그대 그렇게 원하던 새로운 사회를

쟁취할 때까지, 해방의 그날까지

끝까지, 끝까지 싸워나가자!

박 종 철 (당시 22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 열사 묘역



1965년 4월 1일	부산 서구 아미동 출생
1983년 2월	해광고등학교 졸업
1984년 3월	서울대 언어학과 입학
1986년 4월 11일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에 참가하여 구속
1986년 7월 15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출소
1987년 1월 13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요원에 의해 연행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폭행으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87년 1월14일 꽃다운 한 젊은이가 죽었다.

그러나 박종철 동지의 죽음은 또다른 삶이었다.

1919년 3·1운동에서의 유관순이 그러했고, 1960년 4·19혁명에서의 김주열의 죽음이 그러했듯이. 박종철 동지의 육신은 죽었으나 온 국민의 가슴속에 살아 남은 국민의 분노속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다. 6월항쟁은 박종철이 온국민의 가슴속에 지른 불씨가 활활 타오른 것이었다.

박종철 동지는 서울대 언어학과에서 학생회장을 맡아 중심으로 학생활동을 전개해 왔고 신당동 가두시위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겪으면서도 민주화의 실천 의지를 굳게 지켜왔던 사람이다.

87년 1월13일 자정 경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 의해 연행되었다.

당시 박종철 동지는 86년 청계피복노조합법화요구 시위로 구속되어 재판 끝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감옥생활에서 풀려나 있었다.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위' 지도위원으로 수배받고 있었던 박종운(사회학과 졸)과 뜻하지 않게 연락이 되어 여러 동료 선배들과 함께 만나보는 자리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소문이 나서 경찰은 박종운을 잡기 위해 박종철 동지의 주변을 감시했다. 이러한 경찰의 주시속에 박종운과의 재차 교류가 있었고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나, 한달 남짓 박종철 동지를 주시하던 독재경찰은 야만적인 고문방법에 의존하여 학생운동의 씨를 말리려 하였다.

14일 오전 11:20분 물고문, 전기고문을 받았고, 11:45분경 중앙대 용산병원에 옮겨졌는데 의사가 검진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한다.

언제부터인가 학생, 노동자, 민주 인사들의 고문의 산실로 공공연히 알려졌던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에 의한 치사사건이라는 데서 분노를 크게 일으켰다.

경찰은 초기 발표에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하며 발뺌을 하였으나 시체부검 결과 온몸에 피멍이 들고 엄지와 검지간 출혈의 흔적과 사타구니, 배 등이 엉망이 되어 있었으며 복부가 부풀어 있고 폐에서 수포음 등이 들렸다는 사실에 근거해 전기고문과 물고문에 의한 살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치안본부는 물고문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물고문 가담자는 조한경 강진규 2인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부영 전민련 상임의장은 영등포교도소에서 조한경과의 대화를 통해 고문진상의 축소조작을 밝혀냈다. 천주교 정의평화구현 전국사제단의 김승훈 신부는 5.18 미사에서 고문진상의 은폐를 밝혀내고 반공근, 황정웅, 이정호 등 3인의 추가가담자를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1월16일 오전 8:00시경 가족의 허락도 없이 벽제 화장터에서 시신을 화장해 버림으로써 증거인멸을 도모했다. 나아가 87년 2월7일 박종철 열사 국민추도회를 원천봉쇄하고 강압과 왜곡을 반복했다.

결국 치안본부는 고문진상 은폐, 조작을 인정했다. 하지만 은폐, 조작이 당사자들의 입맞춤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교도소 면회기록은 박지원, 유정방, 박원택등 치안본부 지휘라인의 체계적인 은폐노력이 있었음을 드러나게 하였다.

그리고 조한경 강진규를 회유하려던 2억원 입금통장의 실체도 드러났다.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은폐조작 지시사실도 인정되었다.

법국민적인 투쟁의 결과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伸怨權(신원권)이란 법리를 판례를 하였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 경찰수뇌부가 원고에게 진상 은폐함을 풀 권리(伸怨權)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자비한 고문살해에 연이어진 계속된 은폐조작은 모두 내무부, 치안본부, 안기부, 보안사, 검찰등이 모인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위에 전두환이 있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속보이는 거짓말은 온국민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413 호헌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종말을 향해 질주하였다.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 고문은폐조작 및 호헌선언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었고, 이를 통해 전두환 군사독재 지배체제의 엷은 그물이 산산조각나게 되었다. 전두환정권의 폭력성, 기만성, 막무가내는 마침내 6.29 항복선언으로 끝을 맺을 수 밖에 없었다.

박종철 동지의 회생과 온 국민의 떨쳐 일어섬이 있어 승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의 진행은 민주진영의 자만과 분열에 의해 다시 수구세력이 복권되는 결과로 귀결되고 말았다. 민주주체의 민주주의 운동이 민주주체의 국민적 정당운동으로 승화되지 못함으로써 좌절과 실의의 6월항쟁 10주년을 경과해야만 했다. 수구세력의 기도만 목할 것이 아니다. 무력하게 야당의 분열만 탓할 것이 아니다. 조국통일의 대장정과 21세기의 비전을 향해 나갈 스스로의 힘의 부족을 탓해야 하며 이 약점을 극복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과제이다.

◎ 유고글

〈편 지〉

아버지, 어머니.

더운 날씨에 비는 오지 않고 높은 하늘은 틀린 일기예보를 조롱이나 하는 듯이 연일 쨍쨍 내리쬐는군요. 꽤 더운 편이지만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비취파라솔 밑에서 선글라스 끼고 한가하게 피서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먹고 잘 놀아서 피동피동 뺨 살을 빼느라고 사우나탕, 헬스클럽 다니면서 땀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삼복 더위에 라면으로 끼니 때우며 먼지와 기름 냄새로 가득찬 무더운 작업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에 비하면 저는 신선 놀음입니다.

가족들의 그런 태도는 여기 갇혀 있는 저에게는 진정으로 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댄 가족들은 면회오면 어떻게든 곳곳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바깥 소식들을 전해주고 하는데 허구헌날 판사님 앞에 고개 숙여라, 판사가 무슨 내 할아버지라도 됩니까.

저들이 비록 나의 신체는 구속을 시켰지만 나의 사상과 신념은 결코 구속시키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노동자, 학생들이 구속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구속시켰습니까. 저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들 편한대로만 만들어 놓은 이 땅의 부당한 사회구조를 미워합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용기가 없다면 마음 속으로 진실하게 믿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왜 쉬쉬합니까. 한명에게라도 더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알려주세요. 내가 왜 구속되었는가를, 저들의 폭력성을, 우리들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고발하십시오. 그럴 용기가 없으면 마음 속으로나마 바깥에서 오늘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저처럼 싸우다 갇혀 있는 친구, 선배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라도 쳐 주십시오. 엄마 아버지의 막내는 결코 나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만 즐입니다.

칠월 팔일 막내

〈박종철 동지가 옥중에서 부모님께 드린 편지〉

김 용 권 (당시 23세)



1964년 6월 10일

출생

1983년

서울대 경영과 입학

1985년

카투사 지원 입대

1987년 2월 20일

내무반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함

墓 용미리 서울 시립 묘지

◎ 사건경위

1983년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김용권 동지는 1985년 10월 카투사병으로 입대 후 의정부 소재 미 제 2공병사단에서 근무를 하던 중 86년 8월 3일 14시경 미 8사단 보안부대로 호출되어 동일 18시 30분경까지 추봉엽 상사로 부터 서울대 민민투 관련 제보를 할 것 등 프락치 행위를 강요받고 7시간 동안 발가벗기운 채 매를 맞은 경우도 있는 등으로 해서 불면증과 신경쇠약, 정신불안에 시달려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87년 2월 18일 용산 미 121 후송병원에 들러 약을 받고 영동포 집에 들른뒤 2월 20일 오후 10시 40분경 자신의 내무반 2층 침대난간에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은 채 목을 매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미 군당국은 자살로 수사 종결하였으나, 목을 매어 죽은 사람이 무릎을 꿇은 상태일 수 없으며, 추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프락치 강요를 받아오던 중이란 점으로 보아 보안대에 의한 살해로 추정된다. 김용권 동지 죽음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동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문 및 의문의 사망에 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문폭력대책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위원회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김용권 동지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문점이 무엇인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였다. ‘고 박종철군 범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고김용권군 의문사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차원의 대응을 모색하였다. 이들 민간단

체와 교회 등은 스스로 조사를 하고 조사보고서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 의문점

김용권 동지의 시신이 발견된 2월20일 이래 가족들이 가졌던 의문점들은 2월24일의 진정서, 각종 민간단체의 조사보고서, 성명서, 미8군 사령관에게 보낸 진정서 등의 문서에 나타나 있다. 이들 문서를 토대로 당시 가족들이 가졌던 의문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살을 기도할 동기가 없으며 유서도 없다.

가장 먼저 문제로 된 것은 김용권 동지의 자살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용권 동지는 2월18일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을 때도 전혀 특이한 언동을 하지 않았다. 군대에서도 연대장으로부터 상장을 받은 등 모범적으로 군복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김용권 동지는 평소에도 즐겨 글을 써왔는데 유서도 한 장 없이 자살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② 2월 18일 이후 행적에서 이상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김용권 동지가 2월 18일부터 시체로 발견될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였다. 집에서는 2월18일 오후 7시경 귀대했는데 이틀 뒤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 이상했다. 김용권 동지는 2월19일 오전 7시30분의 아침조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 그리고 19일 식사에

준하여 약을 복용한 흔적은 있는데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또 한국 헌병대와 미 CIA 합동조사에서 사망추정시간을 발견전 8시간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역산하면 사망시간은 새벽 2시이므로 김용권동지의 방에는 불이 새벽에 켜져있어야 하는데 이를 본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김용권동지는 어디에 있었는가?

시체가 발견된 당일 오전 10시경 어머니가 김용권 동지가 안보인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었을 때는 출입기록부에 김용권의 부대복귀사인이 없다고 하였으며 막사도 살살이 뒤져 봤지만 김용권이 없으니 부대로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막사 부대에 도착해보니 아들이 자신의 막사에서 발견되었다고 하고 출입기록부에는 귀대시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에 귀대시간을 적는 난을 보니 시간을 적는 방식이 나갈 때 이용한 시간표기방식과 다르게 적혀 있고(나갈 때는 미군의 시간표기방식대로 0725로 표기되어 있는데 들어올 때는 20:08로 기재되어 있음) 필체도 동일필체인지가 의심이 들었으며 귀대시간도 21시에서 20시로 고쳐져 있어 조작이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

너무나 이상한 나머지 어머니가 부대에 찾아가 인사계의 벽살을 잡고 "바른 말을 대라"고 하자 인사계는 "윗사람 명령없는 바른 말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③ 시체발견현장의 모습

우선 김용권 동지가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침대의 높이에 대한 진술이 들쭉날쭉하였다. 처음에는 1.2미터라고 하다가 후에는 1.5미터라고 하더니 서울신문의 기사를 보니 2.6미터라고 되어 있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가? 또 왜 이런 혼선이 생겼는가?

목을 매달았다는 전선줄의 매듭은 교수형때 쓰는 것처럼 사람이 매달리면 조여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니고 더이상 조여질 수 없는 형태인데 이런 매듭에서도 목을 매어 죽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었다. 더구나 끈을 매단 2층 침대의 난간이 낮아 무릎이 지면에 닿아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곳에서 목을 매어 죽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었다. 그리고 먼저 목을 더밀고 자신의 목과 침대를 묶어 목을 매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점이다.

④ 고문과의 관련성 여부

가족이 김용권 동지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김용권동지는 1986년 8월3일 포천군소제 8사단 보안부대 행정계장 추봉엽 상사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보안부대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추상사로부터 서울대로 돌아가 프락치 노릇을 하면 충분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이를 거절하고 나오려고 할 때 김용권 동지는 다른 방으로 끌려 들어가 83학번 민민투관련자 소재수사를 받으며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부대에 있던 홍태룡씨의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홍태룡씨에 의하면 김용권 동지가 8월쯤 포천에 친구한테 간다며 나갔는데 며칠 뒤 동료 임창택 병장한테 보안대에 끌려가 7시간 동안 발가벗긴 채 맞았다고 얘기한 것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학교 1년 선배이면서 대학동창인 허병화씨에게도 김용권 동지가 "의정부 보안대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처지이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후에 김용권 동지가 보안대에 다녀갔다는 사실은 1986년 8월 3일자 출입 통제 기록부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김용권 동지는 이후에도 추봉엽 상사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으며 복수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였고, 고문 때문에 허리와 고막이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운명 직전까지 그러한 프락치 권유나 고문이 계속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김용권 동지는 보안대에서 고문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김용권 동지의 부모입장에서는 김용권 동지가 자살했다는 것도 잘 납득되지 않지만, 만의 하나 자살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문에 대한 공포가 주요한 동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설사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추봉엽과 보안대의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김용권 동지의 가족들은 명확한 사인조사와 아울러 고문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 유고글

〈나의 대학생활...〉

1983년 봄 나는 입학했다. 꿈에 그리던 대학으로 나는 부푼 꿈을 안고 향했던 것이다. 앞으로 4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밝게만 생각되었다. 당시에도 물론

입학금관계로 위축된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적어도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 3월초 찬수형으로부터 써클 입회권 유를 받았다. 나는 완강히 부인한다. 써클-데모-계적으로 이어지는 사고로 나는 몹시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말쯤에서 무리한 시간들을 채워보고자 또 사람이 그리워 '세문'을 찾았다. 역시 사회과학독서회였지만 그런 것을 공부해보고 싶기도 해 큰부담은 없이 다녔다. 그 이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문제로 나는 몹시 고민했다. 교정에서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와 저이들은 무엇이 다른가? 행동을 강요당하는 압박감 같은 것을 느끼며 나는 그곳을 벗어나려고도 해보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관념은 현실적인 타격과 피

해 앞에서 무력해짐을 많이 느꼈다. 5월에 들며 나는 처음으로 시위를 나갔다. 긴장 속에서 보내진 몇 시간 후에 이것 저것을 겪고 떨림속에 유인물을 읽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여러번 시위와 집회에 참가했다. 때로는 허상에 젖어 의미부여를 하지 못하기도 했다. 여름으로 접어들며 농촌활동을 갔다. 학사경고를 두려워하며 보냈지만 이시기를 통해 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 좀더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진 것이다. 문제의식과 더불어 대책 방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개혁과 혁명의 논쟁이 친구들 사이에 퍼졌다. 혁명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피와 혼란을 두려워했다.

박 선 영 (당시 21세)



1966년 9월 8일 전남 화순 출생
 1985년 2월 전남여고 졸업
 1985년 3월 서울교대 수학교육학과 입학
 1987년 2월 20일 학내 비민주적 학사운영 및 미제국주의 매관세력의 지배를 받는
 압담한 조국의 현실에 분노, 항의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옥을 매 자결함

墓 광주 망월동 민주 열사 묘역

◎ 동지의 삶과 죽음

85년 서울교대에 입학한 후 수학과 학회 편집부에서 활동하였고, 교대에서의 학교측의 학회와 씨름의 해체 조치 이후에는 교회 대학부 연합모임에 참가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서울교대는 전두환 정권 시절의 다른 학교보다도 더 악질적인 교육관료들의 횡포로 인해 학내에 지하 취조실이 있을 정도였고, 그 또한 문제학생으로 지목을 받던 처지였다. 이런 현실에 맞서는 박선영 동지는 자신의 마지막 투쟁을 자결로 표현하였으나, 학교당국은 그런 그의 죽음조차 이성관계에 의한 자살로 왜곡하는 반인륜적인 작태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글

생각하면 이것은 자살이지만 자살이 아닙니다.

군사독재 치하의 사회현실과 폭력적인 서울교대 당국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 협박이 2년 동안 서서히 목을 조른 타살입니다. 간접 살인입니다. 부끄럽고 못한 애비가 이 마당에 그에게한테 무라고 할 말도 없지만 그러나 그애의 죽음, 이 시대를 사는 보통사람인 그 애가 시대에 교살당한 이 사건의 의미가 학교당국의 말처럼 "남자관계로 죽었다"고 은폐되고 왜곡된 채 매장되어 버릴 수 만은 없습니다.

박종철, 이한열, 그리고 무수한 민주 열사들의 죽음

과도 다른 의미로 한 순수한 영혼에 대한 간접살인을 세상에 알려 죽은지 몇 달이 지나도록 제 죽음의 의미조차 가려져 있는 불쌍한 그애의 죽음을 민주화의 꿈에 부풀어 있는 참 민주세상, 참 밝은 세상, 참 정의로운 세상에서 학우들은 학업에 전념하고 공직자들은 소신 것 맡은 일을 다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끝으로 딸자식의 죽음으로 인해 저나 전 가족들의 눈이 뜨이게 된 것과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1987. 8. 선영이의 아버지 박 운 주

◎ 유고글

<유 서 1>

날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

딸 자식의 불효를 부디...

강하게, 바르게, 이 세상 땀이 살아가지 못함이 못내 부끄럽습니다.

언니. 진정 언니를 아껴줄 이에게 시집가길 바래. 미안.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벗들. 그리고 모두에게 강하게 살길 바란다. 내가 차지했던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메꿔나갈 것이니...

나의 죽음에 대해 그 어떤 추측도 억측도 싫다. 어떤 그대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유 서 2>

"이땅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최소생활 유지를 위한 몸짓마저 모두 빼앗긴 채 죽어가고 있다. 이 한반도에는 외국자본에 의해 더 이상 자립경제가 발붙일 곳이 없어져 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도 민중의 아픔, 나의 본질적인 억압을 떨치려하고, 무관심한 나의 안일이 역겹다. 점점 민중들 그 의미도 잘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하길 꺼려하는 나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아서 가장 못난길을 택하고 만다.

갈 수 밖에 없는 나약함에 서글피 하면서.

◎ 추모글

<동지가 걸어온 길>

박선영 동지는 2학년초에 지하철 내에서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읽다 한운봉 교관에게 걸려서 수많은 자술서와 반성문을 써야만 했다. 그녀의 일기장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교관이 스쳐 지나가면서 학생들이 보는 책을 유심히 관찰한다. 아! 그 눈초리 정말 싫다 싫어. 그는 어떤 인간이기에 그럴 수 밖에 없는가?"

박선영 동지가 현실사회를 어떻게 보았으며 어떻게 살아가고자 노력했는지는 다음의 일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사회는 날 미치게 하기에 충분하다. 아니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나의 의견이 자신에 대한 분노이다. 이 땅 한반도에 사는 신중속국의 모든 백성이여! 패배자가 아니라 승자가 되어 후세에게 땀이 자랑할 수 있도록 일어나자 일어나자. 백두에서 한라까지 힘찬 행진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녀의 운동을 향한 강한 신념은 2학년 여름방학, 광주 집에 다녀 온 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기에서 나타나듯이 그녀는 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모님과 형제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진리인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부모님께 불효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그런 갈등속에서 교회 대학부 활동을 정리하고 나오겠다는 선언을 부모, 형제앞에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리의 길을 외면할 수 없는 것. 동지는 2학기 개강후 다시 교회활동을 시작했고 열심히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현실 상황은 여전히 그녀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나는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투쟁하는 것이다. 투쟁과 자살중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2학년 2학기에 그녀는 참으로 많은 방황속에서 투쟁의 길을 선택하고자 했다. 평소에 그녀는 민중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얘기를 친구들에게 자주 했으며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겨울방학을 맞아 어머니의 병환 간호를 위해 광주에 거취하다가 2월10일 경에 서울에 올라온 박선영 동지는 13일(죽기 7일전, 일기장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미 죽음을 결정한 후인데도) 몇몇 학교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밝고 명랑한 빛은 여전했으며 고민하는 친구에게 오히려 격려까지 했다 한다.

이처럼 그녀는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는 동료이면서 선배의 역할까지 했으며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스스로의 방황속에서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그의 이상을 쫓기엔 현실이 너무 압담했기에 자기극복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표현한 것처럼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죽은게 아니다.

"죽어 다시 깨어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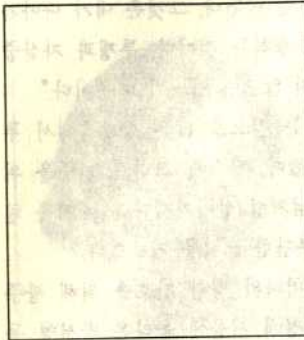
"진정 역사가 원하는 인간이 되기 위하여 힘을 길러 나오리라."

그렇다. 죽음 이후에도 '이성관계로 인해 자살했다'라고 학교당국은 매도했으나 87년 6월 억압적인 교대의 현실을 거부하고 들불처럼 일어난 교대 학우들의 빛나는 투쟁 이후 박선영 동지의 죽음은 새롭게 재조명되었다.

그리하여 교대의 자주와 민주를 갈망하는 학우들과 민중들의 가슴에 새로이 부활의 꿈을 안고 돌아오리라 믿는다.

노철승 (당시 22세)

墓



1965년 3월 5일 출생
 1983년 광주상고 졸업
 1987년 3월 1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사건경위

노철승 동지는 군복무를 마치기 위해 1985년 6월26일 논산 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무선통신사 면허를 소지하였기 때문에 수도방위사로 차출되었다. 수도방위사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들로부터 기합, 구타등으로 다리를 다쳤기에 86년 4월19일 수도통합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1986년 11월14일 광주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1987년 2월15일 수도방위사로 원대 복귀하여 87년 3월1일 8시50분에 특정 지역(청와대 뒷산) 삼일초소 남방 450미터 지점에서 총탄 2발을 머리에 맞고 사망하였다.

◎ 의문점

① 노철승 동지의 형 노찬승이 조선대학교 철학과 4년 재학중 1985년 5월10일 군에 입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군법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어서 노철승 동지는 신원이 부적합한데 특수부대내에서 근무하면서 형과 내통(편지를 수사기관에서 보관중임) 한다고 보안부대에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받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1987년 원대 복귀시 집에서 약 5만원의 돈을 소지하고 바로 특정지역에 배치되었는데 유품에 돈이 전혀 없었음. 사체부검시 하체에 모세혈관 파열상이 심함. 사망 후 유서가 발견되지 않고 제대가 9개월밖에 남지 않아 자살할 이유가 없고, 1987년 3월1일 6시30분-8시30분 사이 초소에서 같이 군

무한 병장 정태영을 1987년 3월25일 면담하여 죽은 경위를 물어보니 "뒤에서 총소리가 나서 죽은 것으로 알았다"고 했으며, 그러면 죽은 현장에 가보았느냐고 물으니 안 가보았다고 하였고, 육군 제8010부대에서 조사한 내용을 받고 의문점이 많아 동년 2월15일부터 3월1일까지의 행적을 알기 위해 내무반 동료들의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소관이 아니라고 거절하였음.

② 사체처리 등의 요청서에 의하면 총탄 두 발을 맞아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K-2 자동소총으로 총알이 두 발은 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두발만 나간 점도 의심스러우며, 총탄 삽입구가 이마이고 총알이 나간 곳은 뒷목 부위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총을 들고, 즉 위로 들고 쏘았다는, 즉 스스로는 불가능한 자세가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승삼 (당시 21세)

墓



1966년 부산 당감동에서 출생
 1986년 3월 부산전문대 전기과 입학
 1986년 12월 16일 논산훈련소 입소임대
 1987년 2월 2일 36사단 공병대에 배속
 1987년 3월 3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사건경위 및 의문점

이승삼 동지는 1986년 12월16일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1987년 2월2일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36사단 공병대에 배치되었다. 부대배치 연락을 받은 그의 어머니는 2월 16일 잠깐 면회를 하였고, 다시 3월 1일에는 외박을 허락받아 같이 밤을 보냈다. 그런데 헤어지자 이틀후인 3월 3일 저녁 부산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승삼 동지의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현병대의 조사에 따르면 3월 3일 오후 4시 30분경 부대 잔류병 2명과 저녁 5시에 하기식을 해야 하는데 그가 보이지 않아 다른 사병의 협조로 하기식을 마치고 그를 찾아다녔는데 문이 잠겨있던 중대장실에서 그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발견 당시에 중대장실에서 난로 옆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는데 머리를 젖히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으며, 머리와 바닥에는 피가 혼전하였고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현병대는 그가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이승삼 동지의 목주반지가 난로위에 있었고, 담배꽂초 3개가 있었으며, 총은 난로 옆에 놓여 있었고, 반항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승삼 동지의 아버지 이두형씨는 사람이 자살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강박감이나 감당키 어려운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자살로 단정한 현병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현병대는 애인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침 구보시 동료의 부축

을 받은 것이 심리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총알에 대해서는 2월 23일 주간 사격과 야간 사격시 실탄을 숨겨가지고 있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두형씨는 탄피가 한 개라도 없었으면 부대원 전원이 동원되어 그것을 찾아내곤 하는 부대관행을 알고 있었고, 현병대가 말하는 자살 동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두형씨는 말단 수사관의 수사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대통령,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현병감, 여야당수 등에게 계속하여 탄원서를 보냈다. 담장이 오면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여 다시 보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몇가지 사실이 더 드러났다.

특히 이승삼 동지가 부대생활에서 선배 사병으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돈을 빌려달라기도 하고 매점에서 무엇을 사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적인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가 죽던 3월 3일에는 종일 밥도 주지않고 세탁하라, 총기반납하라고 괴롭혔으며 초소 근무도 4시간이나 시켰다. 특히 최규권 일병은 그가 군가를 암기하지 못한다고 기합을 주었으며, 안면을 구타하여 안경알이 박살나고 안경 유리가 눈알에 박혔으며 앞니가 4개나 부러진 사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가 자살했다는 수사결과는 변동이 없었다. 그래서 이두형씨는 계속하여 탄원서를 발송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두형씨가 여전히 자살사실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살동기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눈에 안경알이 깨어져 박혀 있고 앞니가 4개나 부러진 정도의 상처를 입었는데도 의무실에 가지 않고 중대장실에 혼자 찾아가 따뜻한 난로옆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으면 기지개를 펴듯 사지를 펴고 죽는 것이 일반적이고, 앉아서 죽는 것은 극소수 수도승이나 동사자 등에서나 발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마지막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눈에는 안경알이 깨어져 박혀있고 앞니가 4개나 부러져 나간 사람이 실탄을 사격장에서 주워다가 자기목에 쏘았다면 폭발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총은 난로 옆에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승삼 동지는 M16소총으로 자기 목에 두발을 쏜 뒤 총을 난로 옆에 세워두고 난로가에 앉아 사망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외 사격장에서 실탄을 몰래 주워두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이승삼 동지는 누군가에 의해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의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의 타살이 자살로 조작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 추모글

(탄원서)

이 글을 올리는 사람은 부산시 북구 금곡동 주공 1단지 105동 401호에 거주하는 이두형이란 사람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엄청난 날벼락에 미쳐 날뛰며 옷다 울다 하며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지내고 살아 왔습니다. 각하께 이일을 명확하게 파헤쳐서 “왜,” 무슨 일로 해서 죽었는가를 밝혀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글입니다.

저의 자식 ‘이승삼’ 이가 서기 1986년 12월16일에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마치고 서기 1987년 2월2일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36사단 공병대대에 배치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승삼의 모친이 2월16일에 부대에 면회를 갔습니다. 공휴일이라 부대 매점에서 잠깐 면회를 하고 왔습니다.

승삼이 모친이 부대생활이 어떻느냐는 질문에 차츰

부대생활이 익숙해 진다면서 별 걱정 하지 말라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다시 3월1일 토요일에 승삼이 모친이 부대에 도착하여 면회 신청을 했으나 오후 6시가 되어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주위 사병들에게 물으니 ‘적점 올라가서 주변사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기에 승삼이 모친이 직접 주변사관에게 가서 부산에서 올라 왔습니다. 자식이 보고 싶어서 왔으니 죄송하오나 외박이 안되겠습니까? 하고 간청하니 한참을 있다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승삼의 모친에게 ‘밖에 나가 계십시오 주의를 주어서 보내겠습니다’ 해서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으니 승삼이가 “에” “에” 하는 소리가 꽤나 호되게 꾸중을 듣는 것 같아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한참 후 승삼이가 나와서 시내 여관에서 이튿날 12시경에 승삼이는 부대로 가고 승삼이 모친은 부산으로 왔습니다. 밤에 여관에 있을 적에 가슴이 아프다며 파스 큰 것 몇 장을 사 달라고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가슴이 아파서 부친다고 해서 어떻게 아프냐고 하니 괜찮다고 하기에 무심코 있었답니다.

▶ 현병대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1) 3월3일 오후 4시30경 부대 잔류병 2명과 죽은 이병 이승삼과 같이 5시에 하기식을 해야 하는데 승삼이가 보이지 않아 타 일병과 협조를 얻어서 하기식을 마치고, 내무반으로 와보니 없어서 행정반실로 가보아도 없어 중대장 문이 잠겨있어서 대검을 문 틈새로 넣어 고리를 제치고 들어가 보니 승삼이가 난로 옆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어서 ‘왜 이리 있느냐?’ 하고 머리를 저치니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졌으며 머리와 바닥에는 피바다가 되어있었으며 그때는 이미 이승삼이가 숨이 떨어져 있었답니다.

주위환경은 난로위에 승삼이가 끼고 있는 목주 반지가 놓여 있었고 또 담배꽂초 3개비가 있었으며, 총은 난로옆에 세워져 있었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자살이라고 단정하고 상부에 보고 하였고 저더러 자살이라 하더군요.

첫째 이유는 총구를 목 밑에 밀착 하여 쏘았기 때문에 타인이 쏘았다면 반항하기 때문에 비켜 나가는데 반항의 흔적이 없다는군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지요. “죽은 사람이 죽어야 할 이유가 있을 터인데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주검으로까지 결단을 해야 하려면 긴박한 압박감이나 도저히 자기 자신이 감당키 어려운 심적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이 따를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인은 없이 그냥 자살이라고 간단하게 추리해서 개주검만도 못하게 처리하는 것이 조사계의 조사 내용이란 말인가요? 그것이 수사의 전모란 말입니까? 참으로 고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오” 하고 재차 다그치니 조사계에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리더군요!

① 2월 23일 주간사격과 야간사격시 실탄을 숨겨가지고 있다가 자살했을 것이며

② 애인 관계가 있을 것이며

③ 식전에 부대에서 2km씩 구보하는데 몹시 피로해서 동료 병사들의 부축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담이 생겨서 자살을 했을 것이라 하더군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최말단 무식한 졸개들의 수사 요지를 듣고 참으로 조소를 금할 길 없고 이것이 현대한국 군의 실상이라는 것을 보고 찢어지는 가슴을 억누를 길이 없이 부대에서 하라 하는대로 화장을 하고 집에 돌아와 생각하니 원통하고 비통함을 어디다 어떻게 하소연해야 이 사건을 시원하게 파헤쳐 보나 하고 여러 방면으로 문의도 해보고 법을 안다는 사람을 찾아가 조언도 들어 봤으나 별 대책이 없더군요! 그 당시 전두환 졸개들의 시퍼런 총칼 앞에 죽어가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외치다 간 녀들이 무수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터라 차마 나에게도 이러한 비운이 닥칠 줄이야! 나는 정치가도 사상가도 아니요, 오직 하루 하루 직장에 나가 노력의 대가를 받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서민들에게까지 이렇게 처절하게 그것도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재학중 군에 자진 입대한 어린 풋내기 이동병을, 그것도 부대 배속 받은지 한달도 안되는 풋 병아리 같이 활개도 제대로 못퍼고 오그리고 있는 병사를, 같은 동료인 철면피같은 놈들, 휴혈귀 이리떼와 같은 전두환 졸개들은 사정없이 때려 죽였답니다.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현병감” “여” “야” 당수

들에게 탄원서를 냈지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니 탄원서를 발송한 곳에서 회신이 오더군요. 이 사건은 군에서 일어난 사건이니 군수사대에 의뢰해서 수사를 시킬 터이니 기다려 달라고요.

얼마쯤이 지나 1군사령부 조사계에서 올라 오라는 전보가 왔더군요. 그래서 1군사령부에 있는 현병대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수사관이 ‘지금까지 조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님이 의심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승삼이가 그 부대로 전입한 후로 전대원들이 많이 괴롭힌 것이 분명 하군요. 전입해서 며칠 안되어서 부대사병 4명이 집단으로 구타하여 불안정 상태에 있는 것을 인사계가 알고 “이승삼 일병 무엇 때문에 고민 하느냐” 고 문의 하자,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하니 인사계가 그 사병 4명을 벌을 주니 이놈들이 앙심을 품고 심적 고통을 주었으며 또 부모가 면회왔다 갔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수명이 괴롭혔으며 박일병이 16,800원을 빌려가고, 그 밖에 구타하던 사병들이 무엇을 사내라며 구타하여 부대 매점에서 술을 사주었으며, 기타 사병 수명도 야간 취침시에는 옆에서도 잠도 못자게 발로 차고, 이러한 등등으로 자살한 것 같습니다’ 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날도 수사관과 싸웠지요. “절대로 자살한게 아닙니다. 스스로 제 목에 총을 쏘아 죽을 애가 아니니, 다시 조사해서 분명히 사인을 밝혀 주는 것이 수사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날 내려 왔습니다.

(2) 그리고 계속 탄원서를 제출했지요 그랬더니 또 한달쯤 있으니 1군사령부 수사대에서 올라 오라는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이번에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여 수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승삼이가 죽었던 1987년 3월3일에는 종일 밥도 주지 않고 세탁해와라 하며 총기 반납 해와라 하며 초소근무도 4시간이나 시키면서 같이 초소를 서고 있는 우리 승삼이보다 6개월 먼저 입대한 경남 고성에 거주하는 최규권 일등병으로부터 군가를 암기 못한다고 엎드려 뺨쳐 시켜놓고, 오래있어 쓰러지니 일어나라며 안경을 쓴 안경위를 강타하여 안경이 박살이 났고 눈에 유리가 박혀서 찢어지고 얼퍼카트를 쳐서 앞니가 4개나 부러지고 했더군요. 이렇게 되니 아마 심경이 울분을 참지 못

하고 자살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을 맺기에 제가 "수사관님, 이렇게 구타해서 눈이 안보이고 이빨이 박살나고 했을 때는 이미 기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살을 가장하기 위하여 쓰러져 있는 성삼이의 목에 총구를 대고 발사한 것이 틀림 없는데 어떻게 자살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수사관이 하는 말이 "죽은 자가 말이 없고 누가 총을 쏘았다는 사람은 없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더 이상 밝힐 수 없으며 그대로 마무리하더군요

그래서 또 탄원서를 냈지요. 그랬더니 한달후에 육군 본부 수사대에서 조사한 것 그것만 가지고 더 이상 밝힐 수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조사를 했으니 더이상 밝힐 수가 없다 하더군요. 그래서 "부모로서 의문점을 제시하고 이것을 조사해주시요. 왜 부모로서 의심 난다는 것은 하나도 밝혀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시 조사를 해서 밝혀 주겠다고 그후로 연락이 없더군요

1997년 1월

부산시 북구 금곡동 주공아파트1단지105동401호
탄원인 이 두 형

박 필 호 (당시 21세)



1966년

부산 출생

1985년

부산진고 졸업

1986년

부산대 의대 입학

1987년 1월 30일

군입대

1987년 3월 19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墓 化 장

◎ 사건경위

박필호 동지는 1987년 3월11일 육군 제26사단 의무근무대에 배치받았으며, 동년 3월19일 아침 6시20분경 소속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단 시체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사체는 목부위에서 사상형(대각선)으로 뚜렷한 색흔이 나타나 있고, 목 뒤 정중앙에 매듭자국의 색흔이 뚜렷하며 입을 약간 벌린 상태였고 좌우측 정강이 부분에 3cm가량의 찰과흔이 있었으며 등허리 부분에도 직경 1cm정도의 찰과흔이 있었다. 사체가 처음 발견된 화장실 4번째 변기칸 천정에는 판초우의 끈으로 보이는 줄이 천정보에 묶어져 늘어져 있었는데 지면에서 약 1.5m지점까지 늘어져 불에 의해 끊어져 있는 상태였다.

한편 같은 날 아침 8시15분에 전화연락을 받은 박필호 동지의 부모들은 이날 오후 4시경 부대에 도착하여 그의 죽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부검을 거부한 부모들은 화장에 동의하였다. 그의 부모들은 그때 나름대로 각처에 알아 보았지만, 시체부검을 맡아줄 사람도 없고, 그당시 육군본부에서 부검을 하러 왔지만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사망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하얗게 딱지가 말라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동지의 아버지는 말단직 공무원이라 말을 잘못 하면 신상에 영향이 미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남은 두 자식과 가족이 살아갈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화장

을 해 버리고 말았다.

2차 조사 때 수사관이 하는 말이 "1년에 400명 가량 자살로 죽기에 국가 재정상 보상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이 부모는 차후에 생각해보니 아들의 죽음에 여러 의문점이 남아 각계에 호소문을 제출하고 군부대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 의문점

① 3월19일 기상위인 6시 바로 점호 전에 화장실에서 판초우의 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하는데, 의문점은 바로 자고 난 후 아무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죽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② 유서가 전혀 없고 3일후면 가족이 면회가기로 되어 있었다.

③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하는데 숨이 넘어가는 순간 인간은 다 살려고 발버둥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천정에 끈을 매고 다리를 변기속에 집어 넣어 자살했다고 한다. 여기서 의문점은 삶에 대한 애착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발을 올려 변기 옆으로 다리를 걸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또 목에 난 상처를 보면, 줄이 감긴 상처가 3군데나 있는데 필시 이는 다른 사람이 목에 줄을 감다가 생긴 상처이다.

④ 아침 6시에 죽은 사람이 정강이 종아리가 변기에 깔렸다고 하는데 상처에 딱정이 말라 있었으며

목을 매 자살하면 눈도 좀 나오고 헛바닥도 나온다고 하는데 자연사로 죽은 것 같이 얼굴이 깨끗하다. 1차 조사때는 몸이 따뜻하기에 인공호흡을 시켜서 나온 헛바닥이 들어갔다고 했고, 2차 조사 때는 입을 다물어서 혀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목을 매 죽으면 혀가 나온다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그리고 2차 조사 때 목부분이 보이지 않는 앉아서 찍은 사진에 변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1차 조사때는 보이지 않았으며 당당시 19일 아침에 죽었는데 24시간도 지나지 않고 다리에 딱지가 하얗게 말라 붙어 있었다.

⑤ 모든 사고는 현장보존이 되어 있어야 하고 조사자나 보호자가 확인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6시에 사고가 났고 당일 오후 4시에 도착했

는데 현장보존은 커녕 옷을 모두 벗겨 목욕을 시킨 후 알콜처리까지 끝낸 후였다. 여기서 의문점은 왜 현장보존을 하지 않았으며 알콜처리하면 피멍이 사라진다는데 왜 알콜처리를 했느냐는 것이다. 분명 구타후 사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처사를 한 것이다.

⑥ 집에서 연락받은 것은 8시15분이었는데 그곳을 관리하는 부대장은 8시30분에 출근한다고 한다. 그러면 8시15분에 부산집으로 연락이 가능하다는 것이 의문이다. 즉 무슨 일이 벌어지면 상관에게 보고가 있어야 하며 사망자의 주소 및 시신을 찾느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렇게 빠른 시간안에 집으로의 연락은 불가능하다. 이는 필시 사망자가 훨씬 전에 사망했다는 증거이다.

장 재 완 (당시 22세)

墓 化 장



1965년 7월 17일	경남 진양 출생
1980년 2월	부산 대성중 졸업
1983년 2월	부산 동인고 졸업
1983년 3월	부산대 사회과학대 사회복지학과 입학
1985년 12월	3학년 마친후 휴학
1986년 1월 19일	방위병 입대
1987년 3월 23일	귀가중 버스에서 중요문건이 든 가방 분실
1987년 3월 27일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

◎ 동지의 삶과 죽음

방위병으로 근무중 민족민주운동의 중요 문건과 책자가 든 가방이 보안대에 넘겨진 사실을 알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동지들과 조직을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막을 결심을 하였다. "... 본인의 중대한 과오로 인해 조직을 보위코저, 나의 육체적 생명을 단절합니다. 우리의 혁명과 투쟁이 너무나 순결하고 숭고한 것이기에 나의 희생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혁명을 향한 민중들의 투쟁은 더욱더 가열차게 격렬해질 것입니다."는 내용의 유서를 부산대 총학생회로 보내고 자결하여 87년 3월27일 야산에서 등산객에 의해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 동지를 생각하며

혁명과 투쟁이 너무도 숭고하고 순결한 것이기에, 스스로의 죽음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셨던, 순진하기만 했던 한 선배님을 불러봅니다.

이 사회, 이 대학, 이 나라의 군대를 당신의 것으로 하시기에는 너무도 순진하셨던 선배님. 그렇습니다. 선배님은 우리보다는 개인을 실천보다는 말을, 노력보다는 순간의 안락함을 앞세우는 지금의 세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순진하다못해 어리숙하기까지 여겨지는 청년이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선배, 장재완 열사를 불러봅니다. 당신이 가신 지 5년, 지난 5년의 시간은 세상의 어

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버림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결심을 하기까지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민중이 나아가야 할 길이 너무도 분명하기에 언제나 치열하고 진지함이 넘쳤던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사회 전체에 선배님의 순결하고 숭고한 투쟁의 의지,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고루고루 나누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물들어가는 나를, 대학을,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꾸어내고, 선배님의 삶과 죽음이 너무도 당연하고 누구나 따라 배워야 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도 현실은 차갑지만, 이제 우리는, 이학관 큰 바위 어느틈에선가 언 땅을 뚫고 솟아오를 봄의 새기운처럼 단단한 의지와, 민중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반드시 녹여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과 함께 억압도 착취도 없고, 자유로운 개성이 봄날 진달래처럼 흐드러지는 민중의 나라로 가십시오.

(제 5주기 추모제 및 계승대회 자료집 중)

◎ 유고글

(유 서)

또다시 계절의 봄은 왔건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땅의 민중들에게 진정한 해방의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민중을 암살하는 침략자 미제국주의자와

미제의 괴뢰인 전두환 강패집단은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갈망하면서 일어난 민중들의 가열찬 투쟁들을 온갖 잔혹한 고문과 살인적 폭력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동지들!

저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83학번으로 86년1월 방위병으로 입소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 본인의 중대한 과오로 인해, 조직을 보위코저 나의 육체적 생명을 단절합니다. 우리의 혁명과 투쟁이 너무나 순결하고 숭고한 것이기에 나의 희생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혁명을 향한 민중들의 투쟁은 더욱더 가열차고 견결해질 것입니다.

애국청년 학생들이여!

이제 우리는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의 위대한 과업을 달성코자 강고한 지도 중앙의 기치아래 결집하여 자신의 온갖 정열과 투쟁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동지들!

이제 저는 가야할 때가 왔습니다. 적들의 야수같은 손길이 나를 찾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이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계기가 된다면 조금이나마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요.

동지들의 미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우리 조국, 한반도 통일을 향한 가열찬 투쟁을 기대하면서.

1987년 3월 27일. 민주학우가.

◎ 추모글

(A)

마지막 보는 조국의 하늘은

어머니,
마지막 보는 조국의 산천은 어찌 이리
아름답을까요.

3월 봄 햇살 따사로움이
피부 깊숙이 와 박히고
쭉쭉 힘차게 일어서는 봄 잔디에
눈물도 가득해집니다.

아직은 할 일이 많은 스물 세 살.

내일 밤이면 어머니 굶은 허리

또 다시 제 손길이 기다려 질테고

자취하기에 항상 배고파하던 후배 동수

나의 구수한 찌개를 아쉬워할텐데

무엇보다도 제겐 아직

미제 축출, 군부 독재종식,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소리 높여 외치고픈 소망이 있는데

하지만 전 믿습니다.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자보를 써 나갔던

동지들의 팍팍한 팔뚝들 힘찬 함성을

매캐한 최루뿔으로 가득했던 교문

몰래 올라가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던

사회대 앞 저 소나무

여기, 이 자리

저의 스무살 청춘은 미칠 듯 만발했습니다.

웬지 가슴이 너덕해져 옵니다.

오늘 저의 마지막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기만 합니다.

이 이 동 (당시 21세)

墓



1966년 4월

전남 광주 출생

1985년 2월

승일고 졸업

1985년 3월

전남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입학, 학생운동에 헌신

1987년 1월

휴학, 입대, 육군 군수사령부 제9탄약창 경비중대 배치

1987년 6월 15일

총격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사건경위

사입구가 사출구보다 커...

1987년 6월18일 수사관 정친화 상사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당일 일정이 09:00-10:00까지 5분 대기조, 11:30분까지 휴식 후 점심을 먹고, 오후에 충정교육이 있어 집합을 시켜보니 이이동이 없었고 이이동의 개인화기가 없는 걸 확인하고 부대앞을 수색했고, 다시 뒷산으로 수색대가 나가다가 방위병 봉금점이 부대 후문앞 묘에서 "이이동"하고 부르자 500미터 떨어진 산속에서 총성이 들리고 7-8분 후에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미 숨을 거두었다고 했는데, 먼저 중대원 32명이 같이 식사를 하는 곳에서 점심시간내 이이동이 없는 것을 못보았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웠다. 더구나 총까지 들고 나갔는데...

특히 놀라운 것은 권영교 소령과 방효운 군의관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권소령은 87년 6월15일 밤(사건당일) 가족이 도착한 마산 육군 통합병원 영안실에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때 현장에 가보니 이이동이 숨을 헐떡이고 있더라. 그래서 부동켜 안고 '이동이' 하고 불렀다"라고 했다.

방효운은 현장검증이 있고나서 영안실에 갔을 때 "그때 가보니 시체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봉금점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권영교와 방효운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고 분명히 진술해 놓고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다른 얘기를 했다.

이러한 군수사 당국의 발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 의문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88년 2월 2일 24:00 노용인(동향인 전남장흥, 87년 3월 29사단 상사로 정년 퇴임. 부대근처 마을 통장)을 만나 노용인과 동료였던 이계수(현 보안대 근무)를 통해 그가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용인의 말에 따르면, 이군의 부친이 이계수에게 알아본 결과 이계수의 사정상 직접 나서서 조사하지는 못하고 최초 목격자 봉금점 방위병과 이이동과 가장 친한 동기동료 이인택 일동병을 보안대로 불러 심증을 따보니 "자살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12시와 1시 사이에 산에 올라 간 적이 없다"(즉 점심시간에 같이 있었다는 말이 됨)고 했다(이에 대한 내용은 녹음되어 있다)

김상원(당시 병장) 말에 따르면 당일(87년 6월 15일) 오전에 10:30까지 5분대기조를 마치고 1시간 휴식 후 점심을 먹고 14:00부터 충정교육을 실시했는데 조금 제 대위(경비 2중대 중대장)가 강연을 하고 나서 "대학생이 데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사람 나와라"했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자 이이동 동지를 지목하여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조금제 대위가 분개해서 주먹으로 우측 눈두덩이를 구타, 안경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고 다시 부동자세로 서있는 이이동 동지의 낭심을 군화발로 구타 실신하자 중대원 중 1

인이 이이동 동지를 업어 내무반으로 옮겨 한참 후 의식이 회복되고 아프다고 소리치며 고통스럽게 내무반에서 뛰구니까 조금씩 대위가 이윤일(행정병, 병장)을 시켜 업고 중대장이 뒤를 따라 나갔고 그후 28분 정도 지나 총성이 들렸다고 한다.

(가족이 알아낸 사고경위)

군수사당국이 밝힌 사고 경위에 따르면 이이동은 불행한 가정환경을 비판, 자살키로 마음먹었다 하나 이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 그것은 첫째로, 이이동 동지는 설혹 가정 환경이 불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비판하고 혐오하는 젊은이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개척해 나가는 진취적인 청년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이동 동지의 대학 친구들의 진술과 그의 편지 등에서 잘 알 수 있다.

둘째로, 이이동 동지가 가정환경을 비판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정환경은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므로 자살을 마음 먹으려면 직접적인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계기가 없다. 이는 사고 전 마지막 접견 때 보여준 이이동 동지의 활기찬 모습과 누나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잘 나타나고 특히 군수사당국이 마땅한 계기를 찾지 못하자 애인관계 운운했던 데서도 잘 드러난다.

◎ 의문점

① 이이동 동지의 사망원인이 되었던 미지의 총상에 관한 의문.

당국의 발표는 '사입구 직경 3센티, 길이 5.7, 12센티, 사출구 직경 4센티'라 했다. 그러나, 사진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이이동 동지의 총상은 사입구가 사출구보다 눈에 띄게 크다. 사입구는 상처부위보다 총길이 12센티, 사입구 직경 8센티이고 사출구는 상처부위가 총길이 5센티, 사출구 직경 3센티이다.

이는 상식에 어긋난 총상이다. 사입구와 사출구가 바뀌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총기 엠16의 경우는 총알이 회전하면서 전진하기 때문에 항상 사출구가 사입구보다 크기 때문이다. 군당국의 발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맞추는 인상이 짙다.

② 이이동 동지의 사망 현장에서 엠16 총기의 위치

에 관한 의문.

최초의 증인 봉금점에 따르면 총기는 상자의 바깥쪽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총기가 처음에는 상자의 바깥쪽에 놓여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 사체에 가까운 안쪽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총기가 상자의 바깥쪽에 있으면 사망자가 총으로 자살을 한 후에 거리가 떨어진 상자의 바깥쪽에 총을 놓을 수가 도저히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나중에 의도적으로 위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옮겨진 총기의 위치도 사망자가 총기로 머리를 쏘고 총기를 두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③ 이이동 동지의 앞에 놓여 있는 상자(앞서 말한 총기가 놓여 있는 상자)의 상태가 사진의 경우 서로 다르다는 것.

첫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상자가 뚜껑이 덮여 있고 총기도 상자와 직각으로 놓여 있다. 그러나, 두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상자의 뚜껑이 열려 있고 내용물이 나와 있으며 총기가 이이동 동지의 머리 부분을 향하고 있다. 두 가지 사진중에 어느것 하나는 사실이 아니다.

④ 군당국에서 주장하는 '자살 가능한 방법'의 경우에 관한 의문.

군당국에서 '총구를 우측 두부에 밀착시켜 격발 발사되므로'라고 하였다. 그리고 '엠16소총의 길이와 총구에서 방아쇠까지의 길이 등을 볼 때 이이동 이병의 신장이 172센티미터, 팔길이가 92센티미터 정도이며 총기를 상자위에 놓고 총구를 머리에 밀착시킨 후 우측 엄지 손가락으로 자살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군당국의 발표중에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은 신장 172센티에 팔길이 92센티이다. 이이동 동지의 신장은 172센티가 맞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사람의 팔길이는 신장의 반에 해당한다. 이이동 동지의 경우는 가슴뎡통을 포함하여 86센티가 정상이다. 팔길이 6센티 차이는 매우 크다. 이것은 사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세를 가지고 자살한 경우를 만들어 내다보니 그만 팔이 6센티나 커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⑤ 사진에 나오는 총기를 보면 총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 상태로는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안전장치의 '안전, 반자동, 자동' 중에 '안전'에 가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당국에서 사고 후 안전으로

옮겼다해도 증거 보존을 위해 찍어둔 사진에는 사실대로 나와 있었어야 한다. 이는 총기의 안전장치에 관한 증거조작의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⑥ 이이동 동지의 남십에 붉은 타박상과 우측 주변의 파란 멍, 두정부의 상처에 관한 의문. 가족이 군당국에 제출한 탄원서에 관한 민원 회신에서는 '최신 법의학'까지 인용하면서 "음낭은 사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부 표면이 변하며 타박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군당국이 최신 법의학까지 인용하면서 설명한 것은 겨우 그럴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고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이전에 타박상 등 충격을 받은 부위가 가장 먼저 변색한다'는 가장 상식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왜 언급이 없는가?

⑦ 다음으로 평소 이이동 동지는 시력이 나빠 안경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였을 정도인데 사건현장에는 안경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이동 동지가 500미터나 되는 산길을 안경없이 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⑧ 이이동의 사망 사진은 그 원인이 머리의 관통상이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M16소총으로 쏘았을 때의 총상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2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 그 첫번째가 파열상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며, 그 두번째가 총상 출구가 두개로 겹쳐져 있다는 것이다.

이재용 (당시 23세)

墓



- 1964년 10월 7일 양평군 출생
- 1982년 2월 성일고등학교 졸업
- 1984년 3월 외대 용인캠퍼스 영어과 입학
- 1986년 9월 외대 용인캠퍼스 학회연합회장
- 1987년 6월 용성지역 호헌철폐 및 군부독재 타도 학생협의회 공동의장
- 1987년 6월 25일 경찰의 침탈을 피하다 교통사고로 새벽 2시경에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당시 용성총련 호헌철폐 및 군부독재 타도 학생협의회 공동의장으로 그 지치기 쉬운 수배생활속에서도 늘 승리를 확신하던 이재용 동지는 경찰의 학내 침탈 소식을 듣고 급히 몸을 피하다가 경원대 앞에서 교통사고로 운명하였다. 다음은 그의 추도식에서 동료가 낭독한 추도사중의 일부이다. "암울한 식민지 조국, 밤의 어둠이 견히지 않고 민족해방의 찬연한 신새벽이 동트기 전에는 그대를 보내지도, 보낼 수도 없다는 것을. 투사 이재용 동지를 생각하며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살을 태워, 우리들의 뼈를 깎아, 기필코 이 피의 전투에서 민족해방의 위업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국이 해방되고 민중이 주인되는 새 날, 동지와 함께 성남에서, 어머니 조국강토에서 한판 춤을 출 것입니다."

◎ 동지를 생각하며 이재용 동지!

팔다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살갓노라며 캄캄한 식민지 조국의 밤을 하얗게 지냈던 그날들. 한달 생활비를 형편이 어려운 동료, 후배들에게 선뜻 내놓으며 자신은 끼니 거르기를 예사로 했던 그 지치기 쉬운 도피생활 중에서도 늘 승리를 말하고 전선을 얘기하며 캠퍼스에서, 가두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싸우던 동지의 모습.

드디어 진군의 북소리가 울리고 이번만은 결단코 학살자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 이 지긋지긋한 군사독재

를 끝장내기로 한 6·10 총파업. 철처부심의 투쟁.

그 6월 투쟁의 어느 날, 성남 시청앞에 운집한 수많은 군중들로 부터 박수갈채를 한몸에 받았던 동지. 가슴이 터져라 조국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피로 토해냈던 투사.

우리들의 동지, 우리들의 투사, 이재용. 동지는 갔습니다.

승리가 목전에 있던 6월투쟁의 막바지에 갔습니다. 살인마의 시퍼런 칼날에 어두운 거리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갔습니다.

아직은 남의 나라 땅. 동강난 어머니 식민지 조국강산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동지는 갔습니다.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이 원통함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나 동지여, 울지 않습니다. 암울한 식민지 조국 밤의 어둠이 견히지 않고 민족해방의 찬연한 신새벽이 동트기 전에는 그대를 보내지도, 보낼 수도 없다는 것을.

투사 이재용.

동지를 생각하며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혈관이 꿈틀거리는 한, 팔팔한 심장의 고동침이 있는 한. 우리들의 살을 태워, 우리들의 뼈를 깎아.

기필코 기필코 이 피의 전투에서 민족 해방의 위업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국이 해방되고 민중이 주인되는 새 날, 동지와 함께 성남에서, 어머니 조국강토에서 한판 해방춤을 출 것입니다.

분단조국 43년 7월 4일 친구가

이한열 (당시 21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 열사 묘역



- 1966년 8월 29일 출생
- 1973년 광주동산 국민학교 입학
- 1979년 광주동산 중학교 입학
- 1982년 광주진흥고 입학
- 1986년 연세대학교상경대학 경영학과입학, 동아리 '만화사랑'에서 활동
- 1987년 6월 9일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걸의대회'에 참석, 시위도중 연세대정문 앞에서 경찰이 쓴 직격 SY 44 최루탄에 피격당해 쓰러짐
- 1987년 7월 5일 새벽 2시5분 세브란스 중환자실에서 뇌손상으로 27일 동안 처절하게 투병하다가 운명
- 1987년 7월 9일 '애국학생 故 이한열열사 민주국민장' 거행

◎ 동지의 삶과 죽음

1987년 7월10일자 조간, 석간 신문을 받아든 시민들은 백만의 인파가 시청앞 광장을 가득 메운 사진을 보고 놀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이 백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처럼 시청앞에 모이게 한 것일까?

이한열!

이한열 동지가 자라난 광주 지산동 조그마한 집 거실벽에는 신영복 선생이 힘차게 쓴 「6월 하늘 함성」이라는 글씨가 걸려있다. 신영복 선생의 표현대로 동지의 이름은 부정과 억압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며 단결투쟁으로 생취한 6월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한열 동지는 어린시절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소년이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를 잘해서 마을에서는 큰 재목이 될거라고 입을 모았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다. 175cm의 큰 키에 준수한 용모의 젊은이로 자라난 소년 이한열 동지는 12년간 개근상을 받을만큼 건강하고 성실하였으며, 고등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낼 정도로 지도력이 있는 대장감이었다.

이렇듯 성실하고 모범적인 이한열 동지의 고민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시작되었다.

"나의 어린날의 추억, 광주사태가 끝난 후 6월 초순,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자연을 만끽했고 고통의 문화재에 심취했다. 친구들과 찍은 몇장의 사진이 있을 뿐, 사회의 외곽지대에서, 무풍지대에서 스

스로 망각한 채 살아왔던 지난 날이 부끄럽다". (유고 [1987년 분단 42년 피맺힌 2월] 중에서)

광주시민 학살에 대한 사진 전시회, 비디오를 보면서 그리고 학교집회에 참석하면서 이한열 동지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의 외곽지대, 무풍지대에서 살아왔던 자신을 부끄러워 하게 되었다. 이한열 동지는 86년 2학기부터 실천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현실의 중심부에 뛰어 들었다.

동지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름 중 '열'자가 매울 열이라면서 자신과 최루탄은 불과불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또 이름의 끝 글자가 같은 김주열군과 자신을 비교하곤 했다. 어쩌면 동지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인지도 모른다. 동지의 기록중에는 죽음과 관련한 내용이 많으며 최루탄에 대한 기록도 많다.

"최루탄 연기로 얼룩진 저 하늘위로 날아오르고 싶다."

1987년 6월9일, 오후 5시쯤 되었을까, 대기중이던 전경들이 갑자기 대열을 정비하면서 조금씩 전진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30-40여발의 최루탄이 난사되면서 교문 앞은 자욱한 연기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학생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곧이어 2번째의 직격 최루탄이 날아들었다.

희미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다. 연기 속에서 빠져나오던 학생 1명이 이한열 동지를 발견하고 뛰어가서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다. 동지의 머

리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렸다. 이한열 동지의 죽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한열 동지의 피격사건은 전국으로 알려졌으며 학생, 시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해 쫓겨가기 시작하였다. 6월항쟁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학생들은 낮이면 거리에 나가 돌을 던졌고 밤에는 병원으로 돌아와 이한열 동지의 주위에서 밤을 지새웠다.

여기 한 떨기 생명이 있어
분노의 목줄기 드리웠나니
생명의 가파른 내리막길이어
숨 몰아쉬며
소생의 전투 그 벼랑끝에 서 있는 나의 전우여, 나의 가슴이어.

나의 애통이어!
한아 깨어나렴
한아 깨어나렴
한아, 이제는 깨어나 마침내 일어서렴.

이한열 동지의 소생을 비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동지는 최루탄없는 세상으로 떠나갔다. 하지만 동지의 죽음은 살아남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물러섬없는 투쟁은 때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수백 수천만이 마침내 깨어나 거대한 폭풍처럼 불의와 억압, 착취를 쓸어버린다는 것.

이한열 동지의 부활은 제2의 6월항쟁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열불나는 세상이 물 속에 잠겼다.
우리 아이가 익사했다.
뜨거운 정열과 불타는 의지가 물 속에 잠겼다.
금강산 댐의 물들이 억수로 한반도를 뒤덮는다.
그 물 속에 우리 아이가 들어 있었다.
63빌딩 꼭대기에서 휩쓸려가는 우리 아이를 보다가,
그만 그 속에 뛰어들 뻔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한다.
더러운 오물 찌꺼기를 걸러내야 한다.
죽더라도 깨끗한 물에 빠져 죽자.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다.
〈87. 1. 20. 이한열 동지가 쓴 글 중에서〉

◎ 유고글

〈동지의 글〉

오월의 마지막 투쟁이 전개되었다. 살인적 가스의 작용으로 민주학우들의 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 피의 오월이 서서히 잠들어간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나날들. 많은 것을 잃고 찾아낼 수밖에 없었던 깨달음들.

많은 사건들이 연달아 신문을 장식했고 우리는 대집에서 많은 이유를 주장했다. 십여개 이상의 이슈와 5월의 노래들. 강의실 안에서 그 노래소리는 은은히 울렸고, 수업거부의 민주토론에서도 우리는 그 노래를 불렀다.

적과 흑으로 얼룩져버린 아이보리.

내가 왜 투석전에 뛰어들어야 하였는가. 눈앞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그 매음조차 느낄 수 없는 투쟁의 선봉에서 왜 나는 그토록 잔인하게 돌을 던져야 했는가?

전경들에게 직접 돌을 던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던 나의 입이 무섭도록, 그들은 이미 나의 목표였다. 주먹만한 돌이 전경의 방패를 타격했다. 나의 행동에 대해 타당성은 볼 수 없다.

한 사회 속에서 개체로서 느끼는 한계. 인간적인 한계들.

이러한 한계상황이 오월을 운동 잠식시켰다.

1986. 5. 30.

〈시〉

그대 왜 가는가

그대 왜 가는가

어딜 가는가?

그대 등 뒤에 내려쬐린 쇠사슬을

마저 손에 들고 어딜 가는가

이끌려 먼저 간 그대 뒤를 따라

사천만 형제가 함께 가야 하는가

아니다.

억압의 사슬은 두 손으로 뿌리치고

짐승의 철되는 두 발로 차 버리자
그대 끌려간 그 자리위에
민중의 웃음을 드리우자

그대 왜 갔는가
어딜 갔는가
그대 손목 위에 드리워진 은빛 사슬을
마저 팔지끼고 어딜 갔는가.

〈편지〉

아버님께
봄날같지 않게 찬바람이 가끔 불어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인데 아버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한달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전에 느끼지 못한 즐거움을 느끼곤 합니다.

지난 주에는 전방에 다녀왔습니다. 전화도 못드리고 그냥 떠나서 무척 죄송스럽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군인들을 보고 제 자신의 안일했던 지금까지의 생활이 후회되더군요.

날씨는 조금 추웠지만, 그 정도 추위쯤은 견딜 수 있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그 곳에서 지금까지의 생활을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지금쯤 누나 결혼준비로 무척 바쁘시겠군요. 어머님도 무척 고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훈열이는 입시준비로 바쁘겠고 아무튼 집안에 많은 일이 겹쳤는데 장남으로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생활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으셔서 무척 서운하시겠지만, 고혈압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아버님께 좀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겠습니다.

셋째누나도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생활비도 넉넉하오니 염려마십시오. 그럼 조만간 뵈 날을 기대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1987. 3. 31. 서울에서 불초소자 올림.

최우혁 (당시 21세)

墓 용미리 서울 시립 묘지



- 1966년 3월 4일 서울 출생
- 1984년 3월 서울대 서양학과 입학
학생운동에 헌신중 수차례의 구류를 살
- 1986년 5월 20일 학내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아 전치 10주의 부상
- 1987년 4월 23일 군입대
- 1987년 9월 8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사건경위 및 의문점

화염에 싸인 채 장승처럼

〈사건경위(군당국의 발표)〉

군당국은 1987년 9월8일 0시50분경 육군 20사단 예하 60여단 최우혁 이병(서울대 서양사 84학번, 87년 4월 8일 입대, 상황실 근무)이 부대내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분신하여 국군 덕정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사망시각 : 0시50분 - 1시30분 추정). 현병대는 사망동기를 개인적 고민에 의한 자살이며 전신 화상과 점화 당시의 질식이 직접적 사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서와 그에 준하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군의 최우혁 동지의 사망을 전후한 행적에 대한 발표는 다음과 같다.

7일 21:00 일석 점호를 할때 최우혁 동지가 자리에 없어, 동료가 화장실에 간다면서 나갔다고 하였다. 그는 불침번에게 "나는 야간 근무 허가가 났으니 누가 물어 왜 없냐고 하면 그리 대답하라"고 말했다 한다. 0:15경 최우혁 동지가 자판기에서 울무차를 빼먹는 것을 운전병이 보았고 이 시각 이후부터 0:50까지는 목격자가 없었다.

0:50경 소각장에서 평하고 불길에 치솟는 것을 위병 초소 근무자가 발견하고 달려가면서 보니 사람같이 서고함을 지르고, 남은 1인이 일직 사령에게 보고하고 같이 뛰어갔다 한다. 달려간 사병은 서서 불타고 있던

최우혁 동지에게 "뭐하냐? 굴러라" 하였더니, 최우혁 동지는 두어차례 굴렀고 자기는 잠바를 벗어 감쌌다고 했다. 불길에 휩싸인 사람이 선 채로 땀뻘 서 있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으로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 2-3분 내에 진화가 끝났는데 그때 최우혁 동지가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일직사령은 최우혁 동지를 담요로 감싸 병원으로 1:30경 옮겼으나, 의사는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동지의 죽음의 원인이 '분신이 아님'은 다음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다.

군은 처음에는 최우혁 동지가 개인적인 고민으로 자살했을 것이라고 유서도 기록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군의 일방적인 장례식 이후, 보안대 부관은 가족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렸다. 사망 일주일전 최우혁 동지에게 2급 기밀문서 초안 30장중 15장을 정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복사를 지시했다고 하다가 최우혁 동지의 형이 기밀문서를 마구 복사해도 되느냐고 묻자 황급히 정서하는 것이라고 바꾸었다). 그런데 최우혁 동지가 실수로 그중 9장을 절삭처리해 버리고 질책이 두려워서 고민했었다라는 것이다. 최우혁 동지의 형이 "왜 이제야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가 뭐냐?"고 묻자 보안대 부관은 장례식 당일인 그날에야 알았다고 답변했다. 기밀문서는 통상 1일 최소한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몰랐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거나, 조작되

었을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살"이라는 발표의 신빙성 문제가 추궁되자 궁지에 몰린 당국은 갑작스레 최우혁 동지를 무능함과 심약함에 비판한 줄장부로 만들려 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횡설수설하는 것은, 정보과 선임 하사는 최우혁 동지가 근무시간에 대공 서적용(사회과학서적) 읽다가 보안대에 적발이 되어 선임하사 자신이 보안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했다. 보안대에 유가족이 이 사실을 추궁하자 그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며 그들 사이에 말이 맞지 않았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동지는 문책, 아니 더 심한 행위를 당했을 것이다.

그의 유품중 대변이 손바닥만한 넓이로 굳은 팬티가 발견되어서 가족들이 매우 놀랐다. 이것이 심한 구타나 고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의 증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지의 갑작스런 죽음에 접한 가족들은 미처 이 증거물을 챙기지 못하고 하루가 지난 후에야 군당국에서 그 속옷을 달라고 하였더니 이미 소각해 버렸다고 하였다.

육군 과학수사연구소 군의관 집도하에, 최우혁 동지가족이나 변호사의 참가없이 일방적인 부검이 시행되었다. 부검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최우혁 동지의 왼쪽 손목에는 길이 1.5센티미터, 너비 1밀리미터, 깊이 3밀리미터 정도의 음폭패인 상처가 있었다. 이를 따지자 군 당국은 최우혁 동지가 사망 수시간 전 자해를 기도했다고 하였으나, 21:00 점호 때 손검사를 했을 때도 야간 근무 직전에 열 동료에게 왼쪽 손목시계를 풀어 주었을 때도 그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군은 나중에야 22:00-24:00 상황실 근무중에 상처를 발견하고 치료를 했다고 했다. 흔히 손목 자해를 기도할 때에는 칼날로 동맥의 직각 방향으로 갖게 마련인데 실제 상처는 몽툰한 모양이며 무엇인가로 파낸 듯하고 방향도 애매하다.

부검당시 최우혁 동지의 내장은 깨끗이 비어 있었다. 이는 최소한 하루 이상을 굶었다는 사실이며 여기에 대해서 군은 최우혁 동지가 먹었는지, 굶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군은 공동 식사를 하는 곳인데 이 부분의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최우혁 동지는 분명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러 끼를 굶었다.

〈군의 발표가 허구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의문〉

8일 0시경 근무가 끝나자 최우혁 동지는 불침번에게 "누가 물어면 야간 근무 갔다고 그래라"며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고, 0:15쯤 운전병의 목격 이후 0:50 분신 시각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내무반에서 소각장까지는 거리가 꽤 멀고 여기까지 걸어가 는 것이 목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일개 이동병이 화장실에 간다면 50분이나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무반에서 아무런 보고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군 당국은 최우혁 동지가 분신에 사용한 휘발유를 상황실에서 입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상황실은 항상 4명씩 24시간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우혁 동지가 휘발유통을 그것도 1.3리터 용량과 큰 통을 아무도 모르게 들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최우혁 동지는 0시이후 이 통을 들고 내무반, 상황실 사이에서 왼쪽 끝 소각장까지 먼 거리를 걸었을 텐데 목격자는 없다.

부검 집도의인 육군 군의관은 최우혁 동지가 점화 순간 많은 연기를 마셔 질식사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사망 현장에서 진화했던 일직 사령은 진화후 최우혁 동지가 "살려주세요"란 말을 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질식사망은 허위이다. 그리고 뚜렷하게 말까지 한 사람이 이송도중 사망을 한 것도 의문인데, 이송 과정 최우혁 동지의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여단장 및 군당국의 이상한 태도〉

우선은 통례상 군 내부에서 일어난 사병의 사망사고(그것도 극단적인 자살)의 경우와 다르게 지나친 친절을 베풀었다. 그 일례로 화장이 아닌 매장을 쉽게 승낙한 점과 여단장이 사비를 털어(140만원) 장지를 마련한 점이다.

그 여단장은 육사 24기 대령으로 익년에는 확실히 장군으로 진급할 사람이며 빠른 진급을 하였다고 한다. 최우혁 동지의 사건으로 진급에 지장이 있을까봐 부관들이 입모아 걱정을 했다.

가족들이 5일장을 치르겠다며 냉동실이 갖추어진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하자 "최우혁은 이미 죽었는데 도대체 몇 명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려 하느냐?"면서 원

색적인 흥분을 했다고 한다. 또한 장례식은 친우들과 친지들이 점심 먹으러간 사이에 머뭇거리느 부모님과 일부만 앰블런스에 실은 채 장지로 떠나 버렸다. 이러한 60여단장의 출세조건과 군 당국의 태도는 최우혁 동지의 사인을 규명하는데에 원천적인 장애물이었다.

최우혁 동지의 죽음은 군 당국의 발표대로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하다가 분신 자살한 것이 아니다. 군 당국의 허둥지둥하는 모습가운데서 각 사람의 말이 서로 맞지 않았으며, 의혹의 사실이 점점 드러나자 날치기 장례식을 해버리고 가족들에게 협박을 하곤 했다. 대학 시절 독재의 억압에 항거하는 스크럼의 대열에 있었고 공장활동을 경험하며 진정한 민중해방운동을 준비했던 최우혁 동지는 피맺힌 한을 품고 죽었지만 우리는 결코 조잡하고 형식적인 군의 발표에 승복할 수 없다. 이미 그들이 발표는 하나하나 그 허구성이 폭로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최우혁 동지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군의 비민주적 작태를 파헤쳐 단죄하는 것이다.

◎ 동지를 생각하며

너무나 짧았던 만남
그러나 너와의 추억은 너무도 깊다.
너는 너무 젊다.
젊음이 이토록 슬플 줄이야!
하지만 남아있을 것이다.
교문앞 매캐한 공기속에 너의 외침이 남아있다.
신림동 녹두집 회부연 전동불아래엔 휘청거리는 너의 노래가 있다.
너의 몸짓은 무더운 5월의 廣場위에
어두운 밤길을 비틀거리며 더듬어 찾은 네 친한 동지의 자취방엔 너의 씩씩한 담배연기가
K경찰서 지하실 한 구석벽엔 '民主主義' 어 만세! - 너의 글씨로
동지들과 모여 늘 대화하고 토론하던 史學科 도서실엔 호소하고 질책하는 너의 목소리가
세평짜리 방안엔 너의 웃음소리와 너의 사랑이, 아끼던 책들과 함께 여전하다.
시대의 고뇌를 함께 나누어야만 했던 네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물속엔...
너의 분노가 남아있어야 한다.
그래, 너는 영원히 젊은 것이다.

87년 9월 전주교도소에서 황인옥

박태영 (당시 20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 열사 묘역



1967년 10월 9일 전남 목포 출생
1985년 2월 14일 덕인 고등학교 졸업
1987년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입학
1987년 10월 29일 단독투쟁 돌입
1987년 11월 경제학과 부회장에 피선
1987년 12월 9일 "군부독재 타도" 와 "제도교육 철폐"를 외치며 분신
1987년 12월 10일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박태영 동지는 대학 수습기자로 일하면서 87년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둔 12월 9일 "오 자유화여, 거국중립내각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친 후 "이 땅의 민족지성인에게 행동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억눌림도, 갈라짐도, 분노도, 저항도, 시행착오도, 피흘림도, 여기서 끝냅니다. 民主人本" 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였다. 분신 직전 학내에서 '군부독재 끝장내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제도교육 철폐하고 민주교육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42일간 단독시위를 하였고 6월 항쟁의 성과로 쟁취한 직선제 개헌과 군정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의 중대과제를 놓고 분열한 민족민주 세력의 단결을 호소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지성인에게

그대들은 억눌림을 아는가
그대들은 분노는 무엇이고
죽음에서 나오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아는가
바보, 그대들은
살기 위한 최소한의 싸움을 아는가
아는게 무엇인가
긴 밤을 엮어가는 노동을 아는가
바보, 그대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대들이 안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출세요, 돈뿐.
지성인들 당신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몰라
자본주의 엘리트
경제학을 전공하고 법학을 전공하고
문학을 전공했다 하여도
당신네들은
민중도 민중도 조금의 노동도 모르는
배웠다는 명칭이들

검쟁이
안다해도 그대들은 검쟁이
억눌림에서 솟아나는 분노가 무엇인지
안다해도
이 억압 이 착취의 창조자 누구인가
안다해도
싸울줄 모르는 비겁자.

— 중략 —

행동할 줄 아는가
실천할 줄 아는가
그대들이 한다는 건
자본가의 논리에 놀아나는 것

그대들은 태영을 아는가
태영의 불타는 절규를 아는가
민족지성으로 태어나리라는
바보, 비겁자, 이기주의
그대들은 태영을 아는가.

추모시「이땅의 민족지성에겐」中

◎ 유고글

<동지의 글 1>

진실의 세계를 기다리며

신록의 청청함이 더해갑니다.

누군가에 대한 순수한 감정도 이제는 정리되어 무
르익을 것 같은 계절의 기운이 풍기웁니다.

오랫동안 자리않던 일기장, 쓰는 곳에서 잠시 시간
의 흐름을 떠 올리고는 부끄러워 했습니다. 그리고선
언젠가 찾아올 진실만이 가득찬 세계가 올 날을 기다
리면서.

무얼 할까요?

어디에 있을 까요?

이렇게 뒤만 돌아보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헛되게
있어야 할까요?

그렇게 헛되게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진실이 가득
찬 세계를 위해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태영

87년 10월 신문사에서

<동지의 글 2>

삶

어디서 사는게 중요하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며 무엇을 소유한 것이 중요하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하다.

피는 용기를, 눈물은 정성을, 땀은 노력을, 피와 눈
물과 땀속에서 성숙할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으며, 성
취할 수 있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창조할 수 있는 것이
다. 소유층동에서가 아닌 창조층동에서 삶의 의미를 찾
도록 해야하고, 향락에서가 아닌 건설에서 생의 보람도
알아야 한다.

죽어갈 때 역사가 마지막 던지는 질문 "무엇을 남
기고 가는가"라는 질문에 당당히 무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생이 보람찬 생이고, 확실한 생이다. 나의 존재
의미, 나의 인생의 기념탑, 나의 생의 창조를 이 황금시
절에 찾고 기록해야겠다.

밖으로 보면 멀고 아득하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가
얼마쯤 건다 뒤돌아 보면 허무한 것이 생 그 자체이다.

1984년 4월18일

태영

<박태영 추모문집-“지난 겨울의 죽창가”중에서>

유 병 진 (당시 22세)

墓 化 장



1966년

충북 옥천 출생

1985년

옥천고 졸업

1985년

고려대학교 문리대 영어영문학과 입학

1986년

문예비평에 가입

1987년

문예비평회장 역임

1987년

학원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학술부원 활동

1987년

대통령선거 공정선거 감시인단 활동 중 화재로 질식

1988년 3월 25일

오랜 투병 끝에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유병진 동지는 85년 고려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한
후 이듬해 동아리인 문예비평에 가입. 각종 세미나 및
유인물 작성, 배포 활동을 하였다. 언제나 환한 미소와
동지들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았던 그는 등록금을 못
낸 후배를 위해 자신의 방값을 내어 줄 정도로 희생적
이었다. 그러던 그는 87년 12월 대통령선거 공정감시인
단으로 활동하던 중 건물에 불이나 4개월여간의 투병
생활끝에 88년 3월25일 운명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조국을 사랑하고 후배와 동료들 사랑한 다정하기
적이었다는 우리들의 벗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여느
어떤 학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노
래를 좋아하고, 강의를 듣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
다. 그러나 한두번 풍기는 최루탄속에서 사회변혁에 대
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진정 억압받은 사람을 대
변하려 했고, 후배와 동료들의 고민을 공유하려 했습니
다.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삶을 추구했던 우리들의
벗, 우리들의 선배 유병진 열사는 그렇게 산화해 갔습
니다. 공정선거 감시인단으로 4천만의 눈이 되어 그날
도 철야작업을 하던 중 불의의 화재로 의식불명이 되
어 100여일의 투병생활 끝에 한층의 흙으로 돌아갔습니
다. 6월항쟁으로 항복을 한 군부독재는 민중들의 눈과

입을 가리운 채 영구집권의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를 깨칠려고 떨쳐 일어난 유병진 열사는 저 기만적
인 군부독재, 그리고 침예화된 서창의 구조적 모순이
그를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유병진 동지 추모사업 준비위원회

◎ 추모글

<시>

고 백

유병진, 그 청년 알았던 내가 나이 스물 헛것이었네
민주정부이고 투쟁이고 다 지푸라기이고 고개 격은
채 묵묵부답이었네

유병진 그 청년 알려준 선배조차 미워했었네
사람하나 없는 밤조차 열사 추모비를 늘 비껴다녔네

식민지 군대에서 돌아온 복학생 한 사람
질은 안개 드리운 조치원 밤하늘 진달래터에서 호
느꼈었지

술 한잔에 부받치는 눈물 감당못해 통곡하던 그 복
학생

내게 열사추모비에 다가설 용기를 주었지, 깊이
유병진 열사의 온기 느낄 수 있었지 유병진, 그 청년
어느날부터인가 정확하지 않지
병진이형 당신의 벗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제

삿날이었는지
학교측과 싸우며 진달래터를 복원시키던 날이었는지
열사의 열기가 화악 내 가슴 불지펴오르는 순간
혁명선배로서 병진이형은 성큼성큼 다가왔는지

여전히 병진이형은 내 삶이 짙어진 십자가이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병진이형 기려야지
민족해방의 십자가 유명진 열사를
조국통일의 나침반 유명진 열사를
국문 92. 오평석

◎ 유고글

〈일기〉

병진.
이제까지의 너의 생활을 잊어라.
그리고 못쓸 휴지를 버리는 것처럼 깨끗이 버려라.
한 때의 생활이 성실함과 근검으로 가득 찼었다고
자부했었을 때 처럼 그렇게 살아라.
배울 것은 배워야 되지만 버릴 것은 버려야 되지
않겠나.
잊음의 시원함을 맛보아야 할 시간이 바야흐로 너
를 감싸고 있다.
얼마만큼의 고통이 울린지는 모르나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으며 또한 환경도 멈추어 주지 않는다.
가장 바람직한 바람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
런히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한다. 뚜렷하게 결정해 놓은
목표도 있으며, 고통이 따르는 열성만 있으면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흐른다.
내가 왜 이리도 초라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물론 잘못은 내게 있다. 그 배경도 내가 만든 것이다.
나태도, 두려움도 나의 나쁜 근성으로 모두가 내가
만든 것이다.
자업자득이 아닌가. 내일을 놓고 내가 후회하는 것
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밖에 안되는 것이 아닌가.
시간이 얼마 만큼이나 귀중한 것일까하는 것을 난
이제 깨닫게 되었다.
결코 헛되이 밝고 넘길 징검다리가 아니다.

우주 공간에 뻣뻣하게 들어찬, 받들어 놓을 틈도 없
을 만큼 복잡한 개념이다.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 범벅이 될, 진정 나 하나만
의 존재를 위하여 노력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다 필연
의 결과는 우연이 아니다.

남의 질시가 따르겠지만 의식한다는 버릇, 습관은
녹여버리겠다.

미래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을 밀거름으로 삼겠다.
믿어라.

1985. 9. 26 동지의 일기 중

〈시〉

노동자의 상처

공해로 범벅된 서울 하늘에
내일이 와도 구로 공단에 울려 퍼지는
은근한 종소리는 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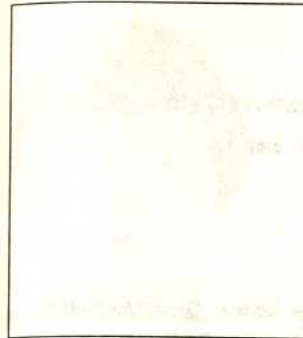
아침부터 범석거리는 출근길.
직기와 작업장 안으로 들어와
공돌이 파란 작업복만 보면
빨간 빛 꿈이 사라진다.

담배 물며 선반 돌리다 날라간 손가락이
마음까지 피로 적신다해도
작업 반장은 놀라지 않을 현실을 생각하면
따갑게 내리 쬐는 한 낮의 태양도 수그러 들고 만다.

서러운 눈물 치솟는 불덩이 같은 지친 몸으로
야간작업 돌입해도 공장장은 저생산 메꿀 수 없다고
큰 소리치며 야단이다.

작업장에서 절단난 상처
고동치는 가슴을 가진 인간으로
불꽃 튀기는 정열을 공장에 바치며
죽은 삶을 피우는 노동자의 상처는
어머니의 땀과 아버지의 주름진 손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아픔

곽현정 (당시 22세)



1966년 10월 24일 전남 목포 출생
1982년 수유여중 졸업
1985년 2월 11일 풍문여자고등학교 졸업
1985년 한신대학교 신학과 입학
1986년 11월 30일 건국대 '애학투련 항쟁' 참여
1988년 4월 10일 성지교회 2층 자택에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곽현정 동지는 건대항쟁에 참여하여 구속된 후, 115
일만에 출소(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하였다. 구속 중
갖은 폭행과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려 1987년 봄
학과와 가을학기를 간신히 마치고 휴학하였다. 건대 항
쟁 이전과 이후에도 수차례 경찰에 연행되어 구류를
사는 등 투쟁의 선봉에 서있던 곽현정 동지는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다 자결했다.

◎ 유고글

〈동지의 글〉

그날의 울분을 되씹으며

"은밀한 침실이 아니어도 그것은(?) 늘 가슴을 두
근거리게 하고 사람을 긴장시킨다. 그날 아침도 역시
그랬다. 새벽에 일어나 병실에서 서울의 건국대학교까
지 내내 흥분, 긴장상태였다. 넓은 교정, 그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많은 사람들, 많은 함성 소리, 그것은 차라
리 완전히 공개된 자유의 마당이요, 해방의 거리였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잡는다고 끊이지 않는 인해전
술과 최루탄 공세는 눈뜨고 지켜볼 수 없는 지옥의 도
살장과 같았다. 문 하나만 깨지면 건물안의 수십, 수백
의 사람들이 개같이 끌려가야 할 판이었다. 모두들 이
성을 잃었다. 그 누구도 침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손에
잡히는 것은 모조리 좋은 무기였다. 심지어는 화장실의
세면대와 변기까지 깨서 사용하였다.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숨이 턱턱 막혔다."

'타타타... 타타타...'
'크허어억, 켜아악...'

'타악, 호역!'
"오호! 이것이구나! 그날 광주의 대울음이, 피바
다가!"

"잊지 않으나, 내 잊지 않으나, 원수들아, 멀리 옥
상에서 흰 깃발이, 패배의 몸짓이 발악적으로 꿈틀거렸
다. 끈이어 부상자가 속출했다. 검은 연기 속의 본관을
뒤로한 채 기자들과 전경들 사이로 어기적 어기적 끌
려나갔다. 결국 살아서 걸어나갔다."

동대문서 유치장 이층

만 열아흐레 스무날의 밤낮을 흥치 포악무도한 형
사님 상전에서 폭행, 협박, 폭언, 기만과 회유를 당하며
죽도록 버텼다. "몽둥이질로, 구둣발로, 이 땅 용공, 좌
경분자(?)들이 말살 가능하다면 실컷 맞아주마! 그러나
너희들은 더 큰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앞 책
상에 앉은 1학년 두 녀석은 맛다 못해 돌이 스무개요,
화염병이 대여섯개요라고 말했고 골고루 나누는 세상
이 좋은 세상이라고 묻는 형사의 말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끈이어 형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들을 넘겼다.

"1987년 2월14일 법정에 섰다. 실형 1년6개월, 집행
유예 2년의 형이 내려졌다. 눈을 감고 이를 물고 서 있
다가 이내 큰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오후 5시, 드디어 출소식이다. "소내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학우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한신
대 2학년 만 일백 열닷새만에 출소합니다. 이거 봐요, 인
사도 못해요? 진정한 조국의 해방과 이땅 남과 북이 하
나되어 어우러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곽현정동지가 출소 후 가을호인 네 번째 『한신』에
투고한 글 일부입니다〉

조성만 (당시 24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 열사 묘역



- 1964년 12월 전북 김제군 출생
- 1983년 전주 해성고 졸업
- 1983년 재수 당시 명동성당 청년연합회 소속 가톨릭 민속 연구회 가입
- 1984년 서울대 자연대 화학과 입학, 2학기 휴학
- 1985년 2월 군입대
- 1985년 12월 구로구청 항쟁시 구류 10일
가톨릭 민속연구회 회장
- 1988년 5월 15일 오후 3시 30분. 명동성당내 교육관 옥상에서 '양심수 석방하라'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치고 할복, 투신, 오후 7시 30분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광주항쟁 8주기를 맞이하는 지난 88년 5월15일 명동성당 구내 교육관 4층 옥상에서 당시 명동 천주교회 청년단체 연합회(명청연) 소속 가톨릭 민속연구회장이었던 조성만 동지가 할복, 투신했다.

조성만 동지는 '양심수 전원 석방 및 수배자 해제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던 오후 3시30분 무렵 교육관 옥상에 나타나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자' '분단상황 고착화하는 미제놈들 몰아내자' '올림픽 공동 개최하여 조국 통일 앞당기자' '광주학살 진상 규명 노태우를 처단하자' '양심수 전원 석방하라'는 구

호를 외치며 5장의 자필 유서를 뿌리고 자신의 배를 찢은 뒤 거꾸로 투신했다. 조성만 동지는 투신 후 즉시 백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투신때 입은 두개골 손상으로 인해 오후 4시30분 뇌사상태에 빠져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가슴에 맺힌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 7시30분 끝내 운명하였다. 그의 유서에는 "도대체 누가 반민족적이고 도대체 애국하는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현실, 우리는 우선 아무 거리낌없이 선입견을 버리고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야 합니다."고 적어 이후에 일어난 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는 계기를 자신의 죽음으로 만들어 놓았다.

최덕수 (당시 20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 열사 묘역



- 1968년 전북 정주시 출생
- 1987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법학과 입학
'서도회' 씨를 가입, 활동
'호남항우회' 회장 역임
동학운동사 연구회' 가입, 활동
- 1988년 1학기 가정형편으로 휴학
- 1988년 5월 17일 교내 광주영령 추모식에서 광주항쟁 성명서 낭독
- 1988년 5월 18일 시계 탑 앞에서 11시경 분신
- 1988년 5월 26일 한강 성심병원에서 분신 9일만에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88년 5월18일 오전11시경 우리의 벗이며 4천만 민주의 혼인 최덕수 동지는 "광주항쟁진상규명" "국조권 발동"을 외치며 시계탑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병원에서도 "광주는 아직도 살아있다" "나는 팬잡으니 돌아가서 투쟁하라"고 동료에게 당부하며 분신 9일 만에 민중의 혼으로 되살아났다. 최덕수 동지의 분신동기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가장 컸다.

87년 민중의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선거(12월)와 국회의원 선거(88년 4월)를 거치면서 정국은 "여소야대"로 치달으며 각 당의 당리당략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즉 6월항쟁에도 불구하고 "광주항쟁의 진상규명" "삼청교육대" "언론탐압" "5공화국의 부정비리(6공도 포함)" "전두환·이순자의 부정비리 소환조사 구속" 등의 진상규명은 허공에 떠 버린 뜬 구름이었다. 이러한 기회주의와 당리당략적인 모습을 보며 최덕수 동지는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고통속에서도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이 최덕수 동지를 분신에 이르게 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이제 우리 부모와 가족에게 한을 남기고 덕수는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만은 않겠습니다. 덕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수많은 학생, 시민이 있고 나아가 4천만 국민이 있기 때문에 덕수의 죽음은 결

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덕수는 우리만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나의 자식을 지켜 주었던 우리의 아들, 딸들과 먼저 간 자식을 잃어버린 유족을 통해 현 사회의 문제점을 다소 깨달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우리 아들이 바라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싸워 나가시다.

〈최덕수동지 아버지 최종철, 어머니 고순임〉

◎ 유고글

〈동지의 글 1〉

분단올림픽 거부하고, 공동올림픽 개최하자!
민주학우여 깨끗이 삼시다.

동지의 마지막 글

〈동지의 글 2〉

빛고을이라 일컬어지던 광주가 하루 아침에 핏고을로 변해버렸으며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라고만 가르친 미제국주의는 만행을 목인, 방조의 단계를 넘어 동조를 한 것이다. 나찌의 유태인 학살에 가슴이 찢어졌다는 무수한 리버럴리스트의 나라 미국은 어째서 80년 한반도의 광주학살에 동조한 것인가? 이러한 행위를 한 우

방은 누구의 우방인가? 그것은 분명하다. 독재정권의 우방임이!!!

예속적 독점체벌과 폭력적 살인군부정권, 그리고 외세 이것은 지난 80년 광주민중항쟁과 민주화투쟁을 통해 확인된 한국현대사의 큰 장애물이다. 역사는 이것이 바로 잡혀야 할 시기에 바로 잡혀야 하며, 그 시기를 놓치면 빛나간 역사는 보다 더 큰 희생과 재물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일제의 강점으로 자주적인 발전의 터전을 철저히 유린당한 이 땅에서 80년 광주민중들이 보여줬던, 한반도에 존재하는 반동세력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과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반역사적인 집단과 가차

없이 싸워서만이 이길 수 있다는 투쟁의 정신이 우리가 광주민중항쟁에서의 얻은 값진 교훈인 것이다.

이제 80년 이후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먼저 가신 이들에게 크나 큰 빛을 진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반동세력과의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광주항쟁 비리주범 노태우를 처단하자!

오월항쟁 계승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광주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

1988. 5. 18. 호남항우회 회장 최덕수

<광주항쟁 추모식에서 낭독했던 성명서의 일부>

박래전 (당시 25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 열사 묘역



1963년 4월 17일	경기도 화성 출생
1982년	송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입학
1987년 12월	민중후보 선거대책위 선전국장 역임
1988년 3월	민중정당결성 학생 추진위 선전국장 역임
1988년 3월	송실대학교 제20대 인문대학 학생회장 당선
1988년 6월 4일	송실대학교 학생회관 옥상에서 "광주는 살아있다", "청년학도여 역사가 부른다. 군사파쇼 타도하자"라고 외친 후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분신
1988년 6월 5일	전신80% 3도 화상으로 한강성심병원에서 몹시 고통스러워 함
1988년 6월 6일	12시 23분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80년, 누이의 가슴팍을 도려내고 죄없는 막내동생을 난자한 학살원흉이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권좌에 앉아, 그 피묻은 손으로 '민주'를 떠드는 비극적인 땅! '명예회복-보상' 운운하며 또다시 광주민중항쟁을 능욕하는 학살원흉 노태우와 '진상조사는 하되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보수야당이 피의 광주를 놓고 벌이는 정치야합. 88올림픽의 휘황찬란한 뽕파레 속에 "환경미화"란 미명으로 이땅 민중들의 생존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민중해방의 신새벽을 앞당기기 위해 싸웠던 박래전 동지는 제 한몸 불살라 학살원흉에게 민중의 불벼락을 내렸던 것이다. "저의 뒤로 저와 같은 죽음이 뒤따라서는 안됩니다."라는 절규는 우리 모두의 투쟁을 촉구하며 88년 6월의 불꽃으로 타올랐다.

◎ 동지를 생각하며성명서

박래전 열사의 위대한 투쟁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박래전 열사의 장엄한 죽음, 그 위대한 투쟁 앞에 서서 고개를 떨굽니다.

지난달에는 조성만 열사와 최덕수 열사의 참혹한 울부짖음 앞에서 몸들 바를 몰랐었는데 이제 또다시 박 열사의 벽찬 죽음의 채찍앞에 서다니.....

그러나, 이들 열사들의 희생은 그분들이 울부짖은 대로 광주학살 원흉의 색출처단과 군정을 끝장내지 않

고서는 결코 꺼질 수 없는 불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 열사들은 자기 한몸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바로 광주학살 원흉과 노태우 군사독재에 대고 지른 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들 열사들의 위대한 죽음앞에서 슬퍼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광주는 살아있으니 끝까지 싸워야하며 그 싸움은 곧 민중이 주도하는 해방투쟁으로 이어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박래전 열사의 고실린 몸은 비록 땅에 묻을수 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뜻은 결코 땅에 묻을 수는 없습니다.

광주의 투쟁을 오늘에 이어 학살원흉을 처단하고 외세를 몰아내고 군정을 끝장내야 합니다. 분단올림픽을 반대하고 공동올림픽을 쟁취해야하며 610남북학생 회담을 성취해야 하며 모든 양심적 민족세력은 이 위대한 박래전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올바른 민중운동으로 단합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족의 해방통일을 하루 빨리 쟁취하여야 합니다.

아, 박래전 열사

꽃다운 젊은 나이에 먼저 가시다니...

그러나 우리들은 그와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참다운 나라사랑, 인간답게 사는 길은 과연 무엇이던가. 박래전 열사에게 묻고 물으며 우리들도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분이 밝힌 그 불길, 그 발길 따라 부르짖으며

지며 다시 서는 자만이 굽이치는 해방통일의 역사와 일치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박래전열사!

<백기완 장례위원장>

◎ 추모글

<시>

민중의 새나라로 돌아오소서

그대, 목숨불로 타오르던 곳에서 떠나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피절은 반도의 산천 깊숙히 서러운 혼들이 떠도는
맨 끝자리.

그 아상 아무도 서지 않아야 될 그곳에 서 계시더
이까

고향땅 때깔산 너머 가득한 어둠 걷워내고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눈 못감고 남아있는 순결한 남이시여

단 한 번도 무릎 꺾이지 않은

한결같은 열정으로 살아온 스물 여섯해

당신의 짧은 하루 하루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너무나 외롭게 걸어온 투쟁의 끝길에

한 송이 꽃보다는

우리의 투쟁을 바치렵니다.

당신의 비통한 죽음 앞에서

통곡으로 풀어내는 설움을 애써 삼키며

이제 눈을 들어 전진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매번

“광주는 살아 있다 끝까지 투쟁하라”

“물러서지마라 우리는 승리한다”고

비겁과 안일과 무감각의 늪에서

아집과 독선의 본원선상에 주저앉은 우리에게

언제나 매서운 채찍질을 내리소서

머지않는 날

민중들 총칼 들고 일어나

파쇼와 미제의 폭압을 쫓고

노동해방·농민해방·인간해방 만세 소리에 묻히는

그때는 더명실 춤추며 돌아오소서
사무친 원한으로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민중의 새나라로 돌아오소서

◎ 유고글

<시>

冬 花

당신들이 제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당신들의 코끝이나 간지르는
가을꽃일 수 없습니다

제게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풍성한 가을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따사로운 봄에도 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는 건
그래도 꽃을 피워야 하는 건
내 발의 사슬 때문이지요

겨울꽃이 되어버린 지금
피기도 전에 시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향기를 위해
내 이름은 冬花라 합니다

세찬 눈보라만이 몰아치는
당신들의 나라에서
그래도 몸을 비틀며 피어나는 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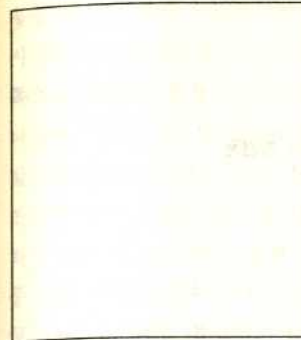
<冬花는 생전 박래전 열사의 필명입니다>

<기념사업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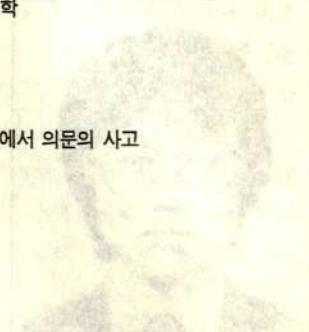
박래전기념사업회는 89년 3월 23일에 창립하여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박래전열사의 뜻을 기려 민중해방·조국통일을 위한 연대활동과 기념사업회 회원간의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우 인 수



1965년 성균관대 경상대학 경영학과 입학
1967년 2월 휴학
1967년 9월 입대
1968년 6월 20일 경기도 파주 소재 1사단 야영지에서 의문의 사고
1968년 6월 24일 국군 수도 통합 병원에서 운명



◎ 사건경위

우인수 동지는 낙천적이고 명량한 성격으로 과학우들과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여 동아리회장을 역임하였고, 87년 2월 휴학후 막노동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피부로 느꼈다.

87년 9월말 입대하여 육군 제1사단 포병연대 58대대 1포대의 서무계에서 근무하던 중 88년 6월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의 외박을 나와 같은 동아리의 선, 후배들과 음주하다가 귀가 후 19일 08시경 주소지인 서대문구 홍은 1동을 출발, 귀대후 원인 불명의 사고로 의식을 잃고 사단 의무대, 벽제병원을 거쳐 19일 20:00경 동촌동 소재 국군수도통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가료중 6월24일 오전 6시경 운명하였다.

◎ 의문점

군당국은 사인을 일사병이라 발표했으나, 20일 입원했음에도 21일에야 가족들에게 연락한 점, 사체를 확인한 부모에 의하면 우인수 동지의 명치 주위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하며, 사체를 옮기던 동료에 의하면 우인수 동지의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심한 구타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군대에서 운동권 학생에 대한 녹화사업이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던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보안대에 의한 녹화사업 도중 변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우인수 동지가 귀대전 동아리의 선, 후배와 만나 상당시간을 함께 술마시며 대화를 가졌다는 사실이 이를 더욱 의심케 한다.